



세계문화유산

고구려고분벽화

World Cultural Heritage Koguryo Tomb Murals

김리나 책임편집



ICOMOS 한국위원회

문화재청

2000여년 전 동아시아를 지배하던 고구려,
 그들이 남긴 거대한 고분과 고분벽화,
 세계미술사에서 보기드문 장대한 스케일에
 고대인들의 삶과 우주관이 그려진
 고구려 고분벽화가
 이제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다시 우리들 앞에 등장한다.

Contents

I. 대표적 고분벽화

1. 안악3호분	06	13. 진파리4호분	56
2. 동명왕릉	12	14. 진파리1호분	58
3. 안악1호분	14	15. 강서대묘	62
4. 덕흥리고분	18	16. 강서중묘	68
5. 약수리고분	26	17. 통구 제12호분	72
6. 용강대묘	32	18. 각저총	74
7. 쌍영총	34	19. 무용총	78
8. 수산리고분	40	20. 장천 1호분	82
9. 안악2호분	44	21. 통구사신총	86
10. 덕화리1호분	48	22. 오회분 제4호묘	90
11. 덕화리2호분	52	23. 오회분 제5호묘	94
12. 호남리사신총	54		

II. 동아시아의 강국, 고구려	임기환	98
III.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	전호태	101
IV. 고구려 고분의 어제와 오늘	강현숙	105

I. 대표적 고분벽화

고구려의 무덤은 중국 집안과 북한 등지에 총 13,000여 기에 달하지만 그 중 벽화가 그려져 있는 고분은 집안 시 일대에 23기, 북한에 65기 정도가 된다. 이 도록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구려의 고분벽화 중에서 비교적 상태가 좋은 북한소재 16기와 중국소재 7기를 소개하기로 한다.

고구려 시대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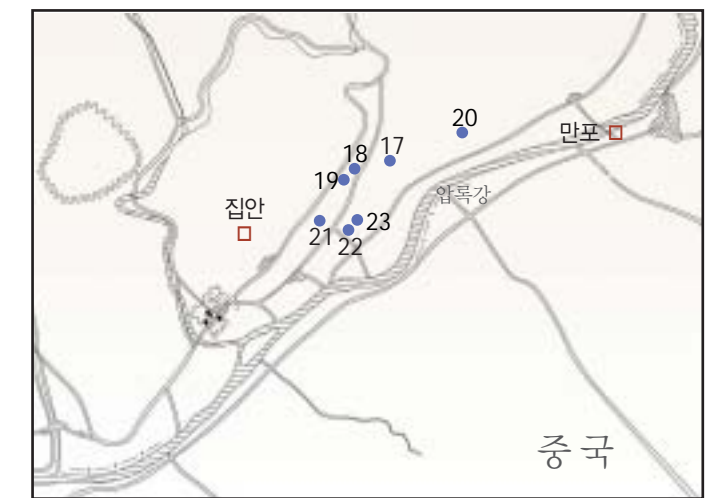


■ 평양 일대



- | | | | |
|----------|----------|------------|------------|
| 1. 안악3호분 | 5. 약수리고분 | 9. 안악2호분 | 13. 진파리4호분 |
| 2. 동명왕릉 | 6. 용강대묘 | 10. 덕화리1호분 | 14. 진파리1호분 |
| 3. 안악1호분 | 7. 쌍영총 | 11. 덕화리2호분 | 15. 강서대묘 |
| 4. 덕흥리고분 | 8. 수산리고분 | 12. 호남리사신총 | 16. 강서중묘 |

■ 집안지역



- | | |
|--------------|--------------|
| 17. 통구 제12호분 | 21. 통구사신총 |
| 18. 각저총 | 22. 오회분 제4호묘 |
| 19. 무용총 | 23. 오회분 제5호묘 |
| 20. 장천1호분 | |

산성자산성 아래의 고구려 적석 고분군



1

안악3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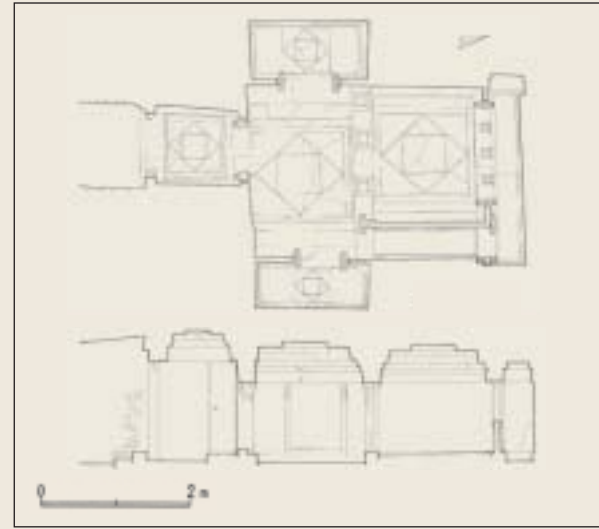
357년, 황해남도 안악군 오곡리

안악3호분은 제작 연도가 확실한 고구려 고분 중 하나이다. 그 규모가 으뜸으로 지하궁전을 방불케 하며, 벽화의 내용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고구려의 국력과 문화 수준, 생활양식을 짐작케 한다.

이 고분은 석실봉토분으로 남쪽으로부터 연도, 전실, 현실로 이어져 있는데 전실 좌우에는 측실이 있다. 벽화는 연도로부터 현실에 이르기까지 벽과 천정에 고르게 그려졌으며 묘주의 초상으로부터 여러가지 생활상과 장식들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고구려 초기벽화의 귀중한 예가 되고 있다.



안악3호분



실측도

전실 입구의 모습



묘주의 초상화

| 서쪽 측실벽 정면

무덤의 주인공이 장막을 두른 평상 위에 정면으로 앉아서 시종들로부터 정사를 보고받고 있는 모습이다. 묘주는 머리에 검은색 내관과 외관인 백라관(白羅冠)을 쓰고 오른손에 주미선(高尾扇)을 들고 있다. 주인공을 크게, 시종들을 작게 그려 신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고대 회화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묘주 부인의 초상화

| 서쪽 측실 좌측벽

풍만하고 살찐 모습의 묘주 부인이 화려한 장막 속에서 묘주를 향해 반측면으로 앉아있고, 이보다 작게 묘사된 3명의 시녀들이 시종을 들고 있다. 아름다운 복식과 머리장식이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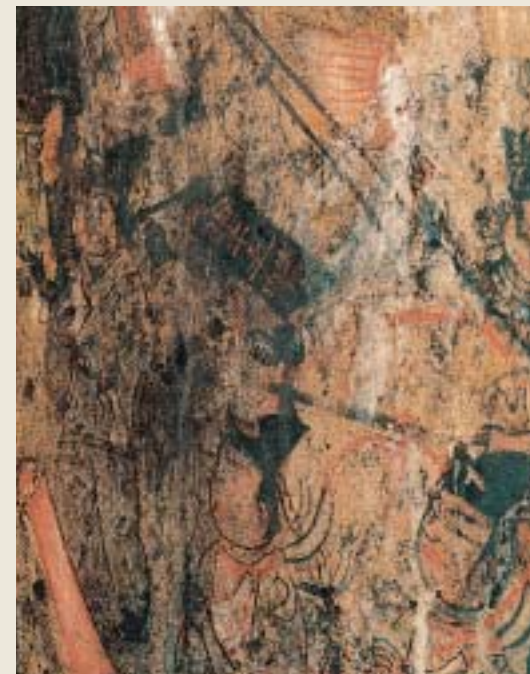


행렬도(모사도) | 전실 동쪽 회랑 동벽

높이 2m, 길이 10.5m에 달하는 웅대한 주인공의 행렬도는 전실의 동쪽 회랑 벽면에 그려져 있다. 무려 250여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손수레를 탄 주인공과 이를 호위하는 기병과 보병 그리고 군악대로 이루어져 있다. 기수들이 든 깃발 가운데 왕을 상징하는 '성상번' (聖上幡)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행렬도 모사



행렬도 부분



부엌 · 고깃간 · 차고 | 동쪽 측실 동쪽 벽면

고구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벽화로 부엌에는 세 사람의 여인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왼편의 굴뚝을 갖춘 이궁이에는 시루가 없어져 있다. 가운데 고깃간에는 사냥에서 잡은 노루, 멧돼지로 보이는 고기가 쇠갈구리에 매달려 있고, 차고에는 화려한 장식의 마차 두 대가 있다.



외양간과 마굿간 | 동쪽 측실 남벽과 서벽 남쪽 부분

세 마리의 황소와 세 마리의 말이 구유에 담긴 먹이를 먹고 있는 모습이다. 소와 말은 당시의 귀중한 교통수단으로, 자연스럽게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인다.



도끼를 든 무사 | 전실 남벽 동쪽구석 아랫단

긴 저고리에 바지를 입고 있는 인물들이 옆으로 나란히 서있는데, 도끼를 들고 있는 점으로 보아 무덤을 호위하는 의미로 보인다.



천정의 연화 | 전실 천정

말각조정의 천정구조를 잘 보여주며, 천정중심부에 끝이 뾰족한 8엽겹꽃의 연꽃무늬가 붉은 선묘로 커다랗게 그려져 있다.

우물 | 전실 동쪽 측실 북벽

목책이 세워진 우물가에 여러 개의 큰 토기 물항아리와 물건을 아낙이 있고 물을 퍼올리는 지렛대 장치도 보인다. 우물 위에 '井'자와 '阿光'이란 글자가 붉은 색으로 쓰여져 있다.



2

동명왕릉

4세기말~5세기초, 평양시 역포구역 용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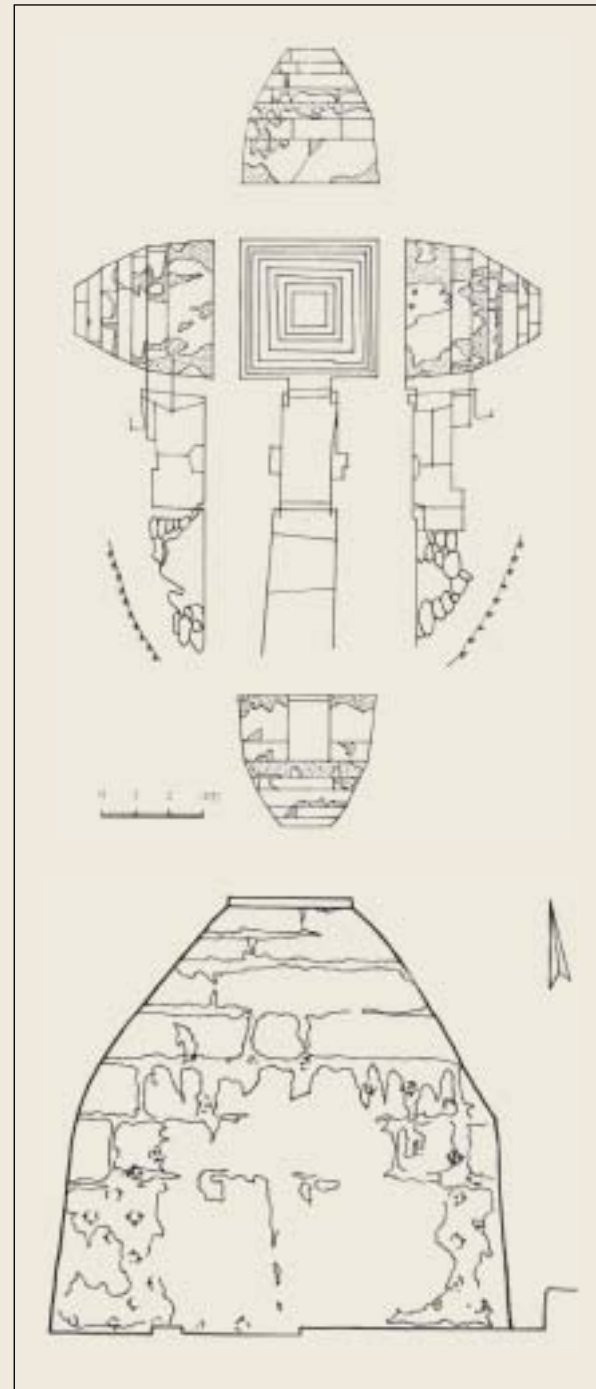
이 무덤은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동명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며 고구려가 427년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나서 통구지역에서 이장된 것으로 보인다. 무덤 형식은 석실봉토분으로 봉분은 하변이 사각형으로 되어있고, 밑둘레에 1.5m 높이의 돌기단을 둘러쌓았다.

묘실의 벽과 천정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된 연꽃이 장식무늬처럼 그려져 있으나, 도굴의 피해로 대부분의 그림이 탈락되어 흔적만 남아 있다. 무덤 옆에는 왕릉을 위한 능사라는 절이 있으며 주변에 고구려 고분 10여 기가 있다.

연도에서 묘실을 바라본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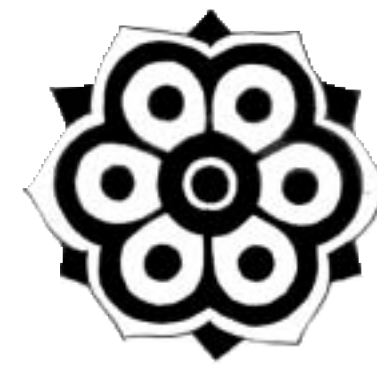
동명왕릉



내부구조 실측도
동벽 벽화 실측도

묘실의 천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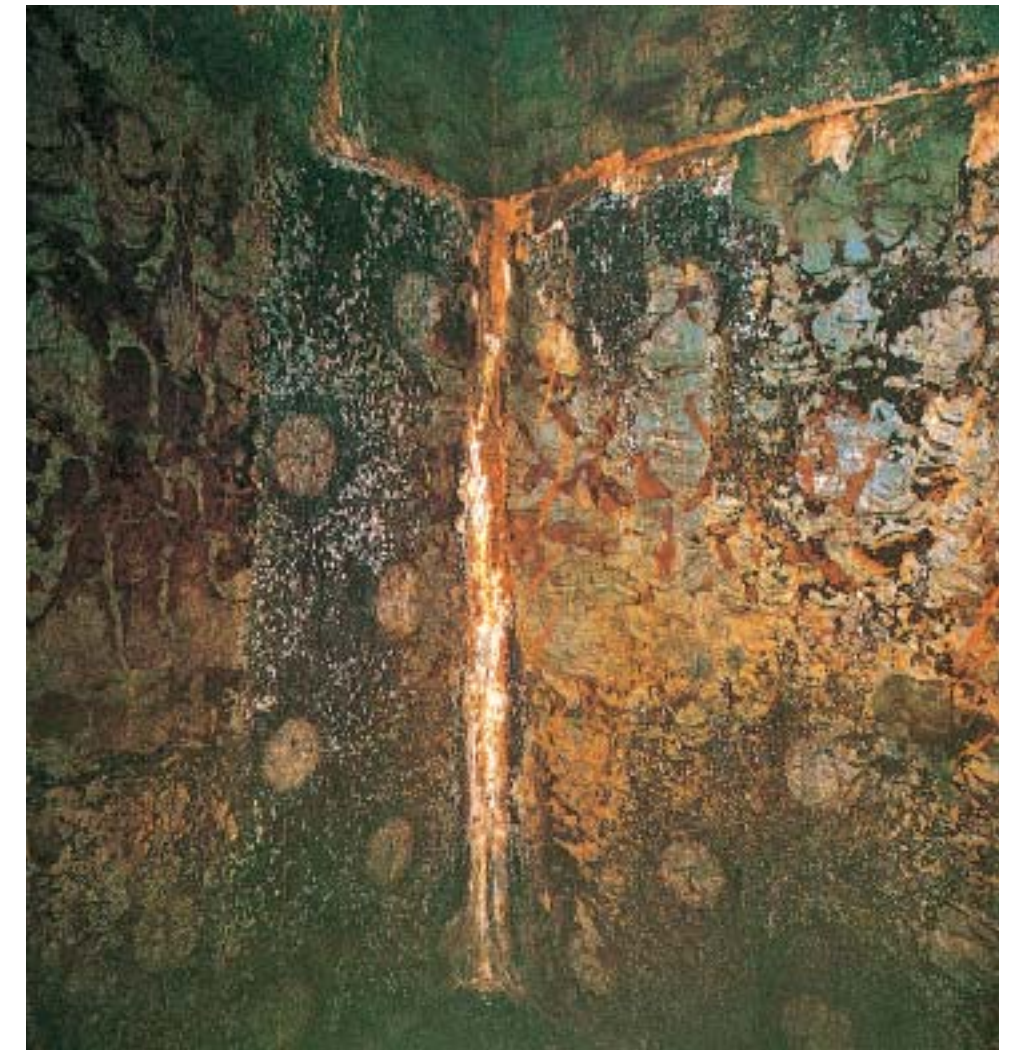
고구려 고분에서 흔히 보는 말각조성식이 아니라 정사각형의 돌들을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게 쌓아올린 형식이다. 천정 주위로 벽화의 흔적이 남아 있다.



연꽃무늬 실측도

연꽃무늬 | 묘실 벽면 서북모서리

벽화는 대부분 탈락되어 연꽃의 흔적만이 조금 남아 있을 뿐이다. 6엽겹꽃의 연꽃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문양처럼 배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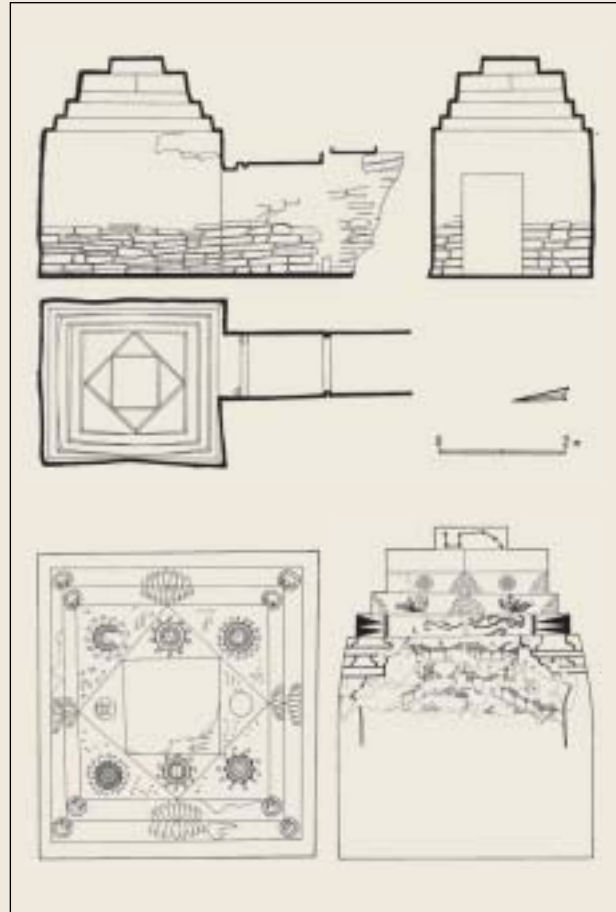
3

안악1호분

4세기말~5세기초, 황해남도 안악군 대추리

안악3호분과 멀지 않은 곳 산마을 언덕에 자리잡고 있는 2기의 고분이 안악1호분과 2호분이다. 앞쪽에 위치한 1호분은 사각형의 봉분에 연도와 묘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벽화는 네 벽에 기둥, 두공, 도리들을 그려 마치 가옥의 실내처럼 치장을 하고 전각도, 수렵도, 행렬도 외에 신수(神獸)와 구름, 불꽃무늬, 연꽃무늬 등을 그린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그림들은 고구려인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잘 보여준다.



실축도
묘실 천정과 북벽의 벽화 배치도

묘실 동쪽의 천정벽화



비어(飛魚)·비마도(飛馬圖) | 묘실 남쪽 천정고임부

2단으로 구성된 평행고임의 위 부분에는 2개의 보륜문(寶輪文)이 있고, 그 밑에는 날개와 발이 달린 신기한 물고기와 말이 있으며 그 중앙에는 아래 위로 삼각화염문이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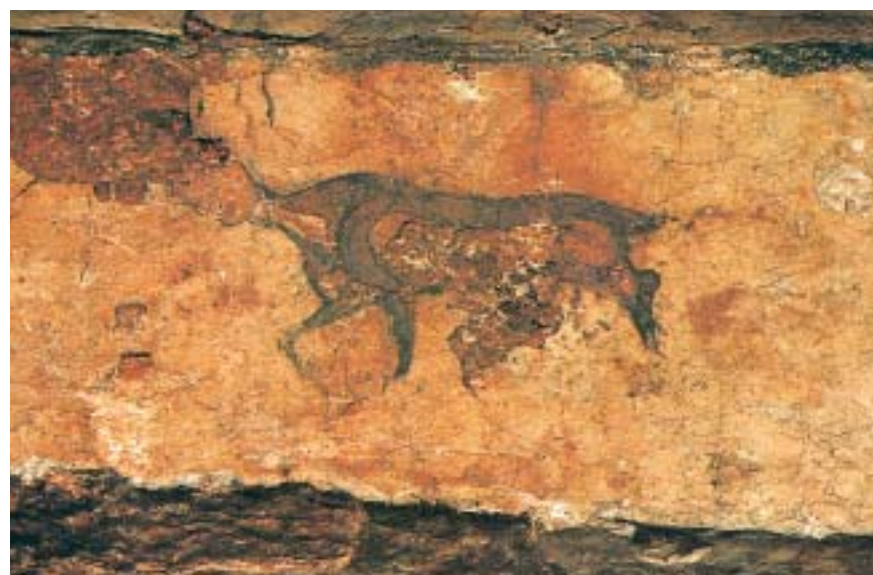
수렵도 | 묘실 서쪽벽

말을 타고 사냥하는 역동적인 모습은 통구지역의 유명한 무용총에 있는 수렵도를 연상시킨다. 왼쪽의 기마인물은 활시위를 당겨 사슴을 쫓고 있고, 오른쪽의 기마인물은 매를 이용해 평사냥을 하고 있다.



전각도(殿閣圖) | 묘실 북쪽벽

양쪽 기둥 사이의 벽면에 조감도식으로 그려진 전각도는 중앙에 2층의 누각을 중심으로 주변에 담장이 둘러져 있다. 건물의 안팎에 일곱명의 인물이 보인다. 고구려 건축의 형태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인두우도(人頭牛圖) | 묘실 동쪽 천정고임부

사람의 머리에 소의 몸을 가진 상상의 동물이다. 덕흥리 고분에도 사람 얼굴에 동물의 몸을 한 '성성(猩猩)'이라는 신수(神獸)가 나오는데, 고구려인들이 상상했던 신화적 세계를 엿볼 수 있다.



기린도 | 묘실 서쪽 천정고임부

기린은 천상에 사는 상서로운 동물로 머리에 뿔이 하나 있고, 날개달린 모습으로 흔히 표현된다.

4

덕흥리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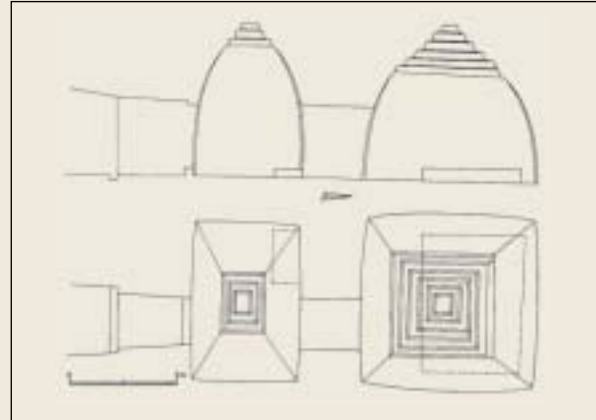
408년, 평안남도 남포시 강서구역 덕흥리

덕흥리고분은 묵서명문을 통해 영락(永樂) 18년(408)에 사망한 유주자사(幽州刺史) 진(鎭)의 묘임이 밝혀져 사료적 가치가 높다. 연도와 전실, 현실이 격식대로 갖추어져 있고, 전실과 현실의 천정은 궁륭평행고임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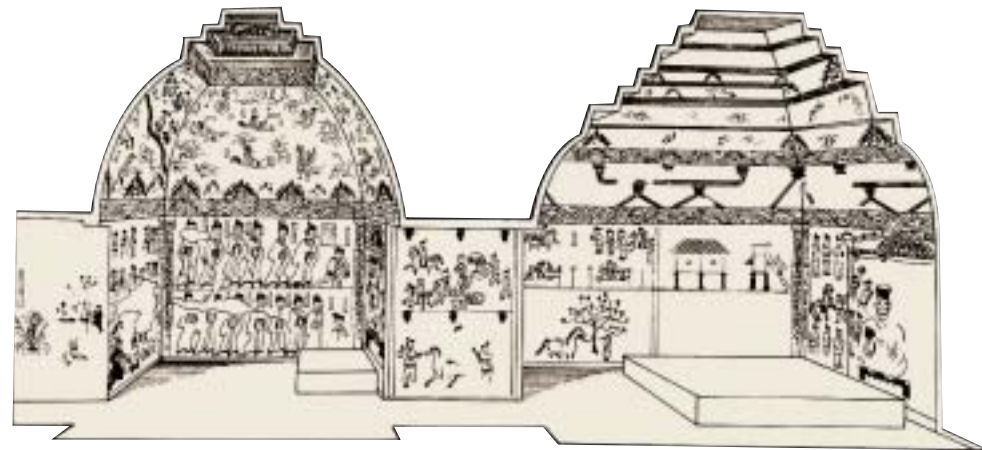
특히, 600여 자의 묵서에는 관직명을 비롯하여 각 장면 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어 고구려의 사회상을 알려준다. 벽화의 내용도 실내의 장식무늬를 비롯하여 주인공의 생활상, 신앙생활, 인물상, 행렬도, 천상세계 등 다양하게 표현되어 고구려인의 문화와 풍습 및 사상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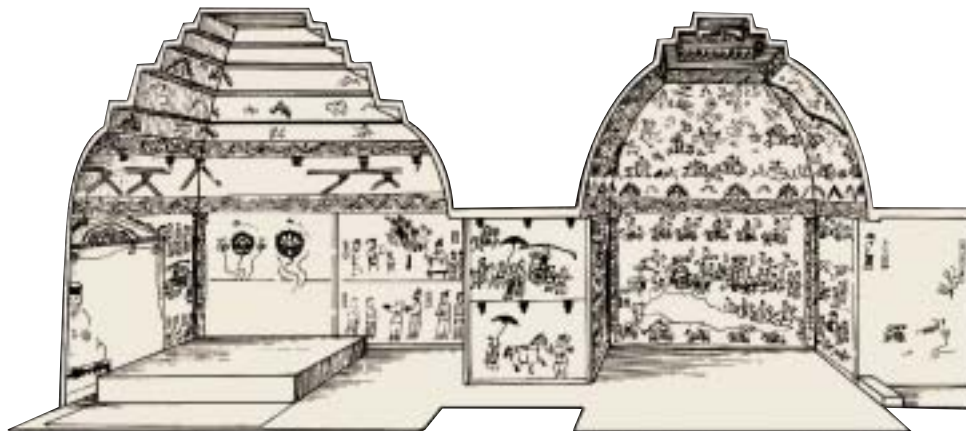
덕흥리고분



실측도



전실과 현실 서쪽 투시도



현실과 전실 동쪽 투시도

무덤의 내부 | 전실과 현실

연도에서 전실과 그 뒤의 현실을 바라본 모습인데 전실 북쪽 왼편에 주인공의 초상화가 보이며, 현실로 이어지는 입구 위에 묘지명이 묵서로 쓰여있다.



전실 북쪽벽 벽화 배치도

묘주의 초상화 | 전실 북쪽벽

전실 왼쪽 북벽에 묘주 진(鎭)의 초상화가 크게 그려져 있다. 그는 광개토대왕의 신하로 대신의 지위에 올랐는데 풍만하고 여유있는 모습에 청라관을 쓰고 갈색의 겹옷을 입고 있다. 장막의 상부 중앙에는 화염으로 둘러싸인 보륵문이 장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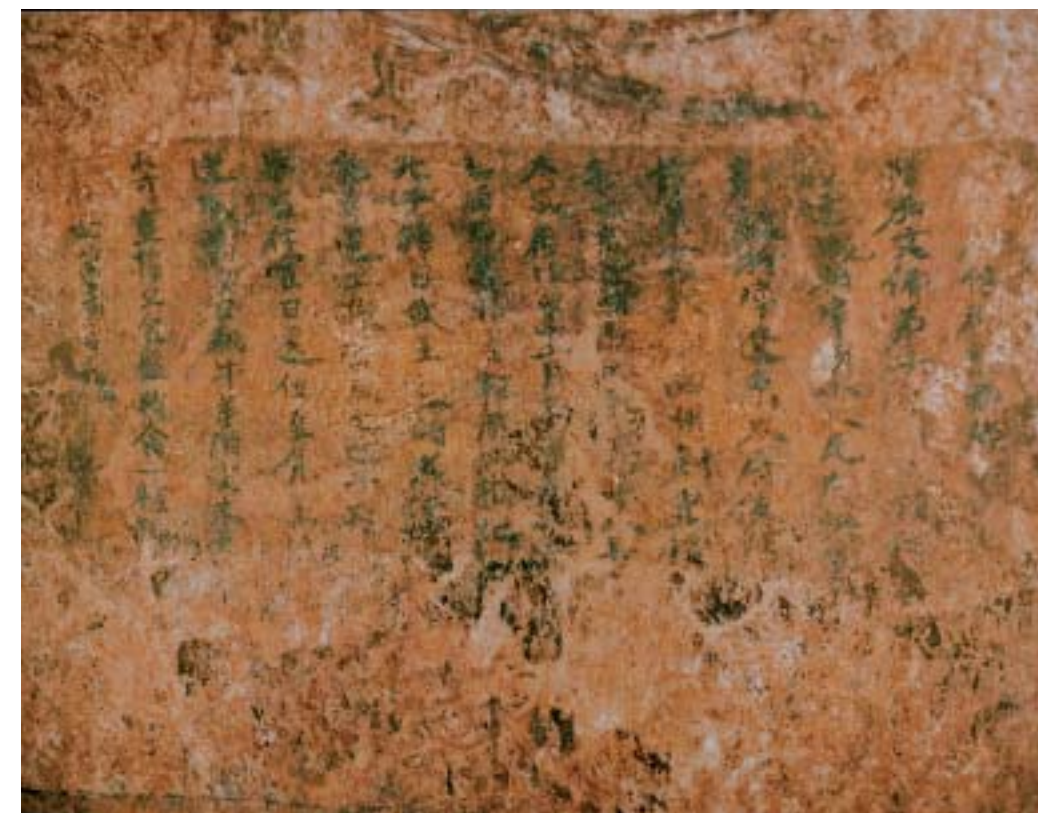
13군태수 | 전실 서쪽벽

묘주 초상의 오른쪽 서쪽벽에는 고구려 유주(幽州)의 13군태수들이 상하 두 줄로 서서 유주자사 진(鎭)에게 축하를 드리는 모습이다. 특히, 뒷줄의 6명 태수들의 모습은 보존 상태가 좋아 글자와 얼굴모습이 생생하게 보인다.



행렬도 | 전실 동쪽벽

행렬도의 중심대열에 수레를 탄 주인공이 보이며, 좌우상하에는 문관, 무관, 기마대열이 있고 이 대열의 위아래로 개마무사들이 호위해 가고 있다. 안악3호분의 행렬도에 비하면 비록 규모는 작지만 유주자사의 지위에 어울리는 당당한 행렬도이다.



묘지명 | 전실 북벽 상단

현실과 통하는 입구 위에 주인공의 약력이 14행 154자가 적혀 있다. 내용은 주인공 진(鎭)이 신도(오늘의 박천, 운전 지방)에서 태어나 여러 장군직과 태수직을 거쳐 유주자사를 지내다 77세에 사망하여 광개토대왕 때인 영락 18년(408) 12월 25일 이곳에 묻혔다고 쓰여있다.



관리의 모습 | 전실 남쪽벽

유주자사 진(鎭)이 거느린 관리들이 사무를 보는 모습으로, 한 가운데 네줄의 설명문 25자가 묵서로 쓰여 있다.



사냥도 | 전실 동쪽 천정 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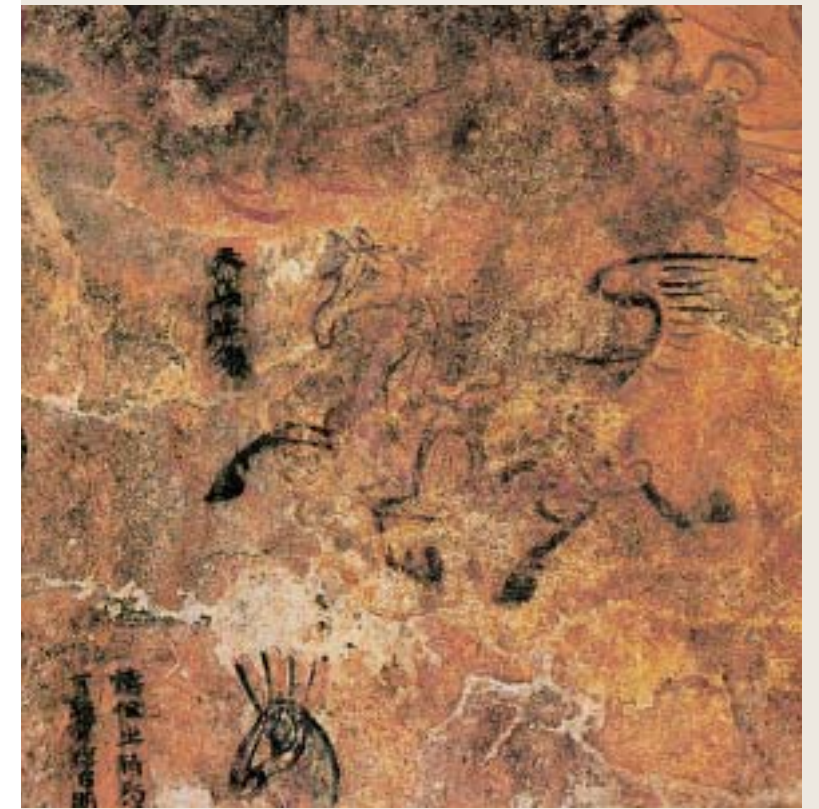
전실 천정의 하단부에 그려진 사냥 장면은 8명의 기마인물들이 달아나는 짐승들을 향해 활을 겨누고 있는 모습으로 전개된다. 몇 개의 봉우리로 그려진 산과 간략한 나무의 표현은 인물의 비례에 비해 작으나 고구려 초기 산수화 표현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이다.



전실 남쪽 벽화 배치도

견우와 직녀 | 전실 남쪽 천정

대각선으로 흐르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소를 끌고 가는 견우를 보내는 직녀의 애절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일년 중 칠월 칠석날 하루만 까치의 도움을 받아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중국 고대 신화가 고구려에 알려졌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천마도 | 전실 북쪽 천정

이 고분의 천정부에는 다양한 종류의 상서로운 짐승들이 등장한다. 그 중 날개가 달린 천마 그림으로 서쪽 방향을 향해 앞발을 치켜들고 힘차게 날아가는 모습이다. 왼쪽 옆으로 '天馬之象'이라는 묵서명이 보인다.



길리와 부귀의 상 | 전실 남쪽 천정

짐승머리를 가진 새가 두 마리가 상하로 배치되었는데, 묵서를 통해 위쪽이 길리(吉利), 아래쪽이 부귀(富貴)를 나타내는 길상적인 의미의 길조임을 알 수 있다.

5

약수리고분

5세기초, 남포시 강서구역 약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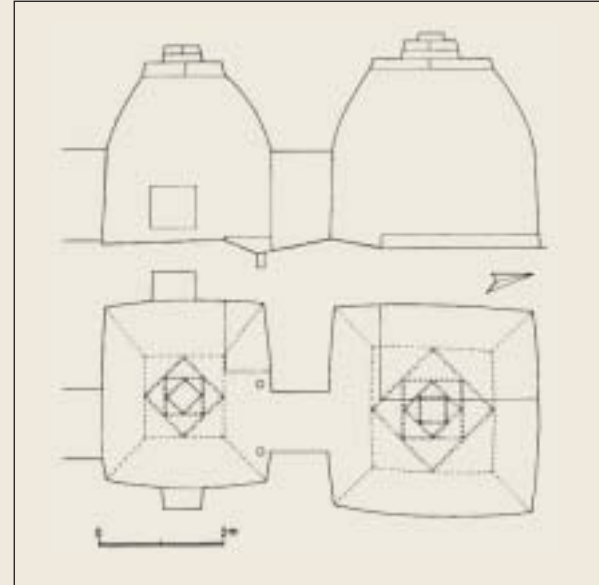
약수리고분은 언덕을 깎아 반지하에 축조한 무덤으로 연도와 전실, 전실 옆에 동서의 감실과 현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정은 궁륭형의 삼각고임식이다. 벽화는 인물풍속도와 사신도가 공존하는 초기의 예로서, 인물풍속도에는 주인공의 생전의 중요한 생활장면을 그린 대형의 수렵도와 행렬도가 있다. 그밖에도 별자리, 구름무늬 등 풍부한 내용의 벽화가 그려져 있어 고구려인의 내세관과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수렵도 | 전실 서쪽벽

현재까지 발견된 수렵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짐승을 쫓는 기마인물과 물이꾼, 동그런 봉우리의 산악과 간략한 선으로 그린 나무들, 하늘의 별자리까지 그려 넣었다.



약수리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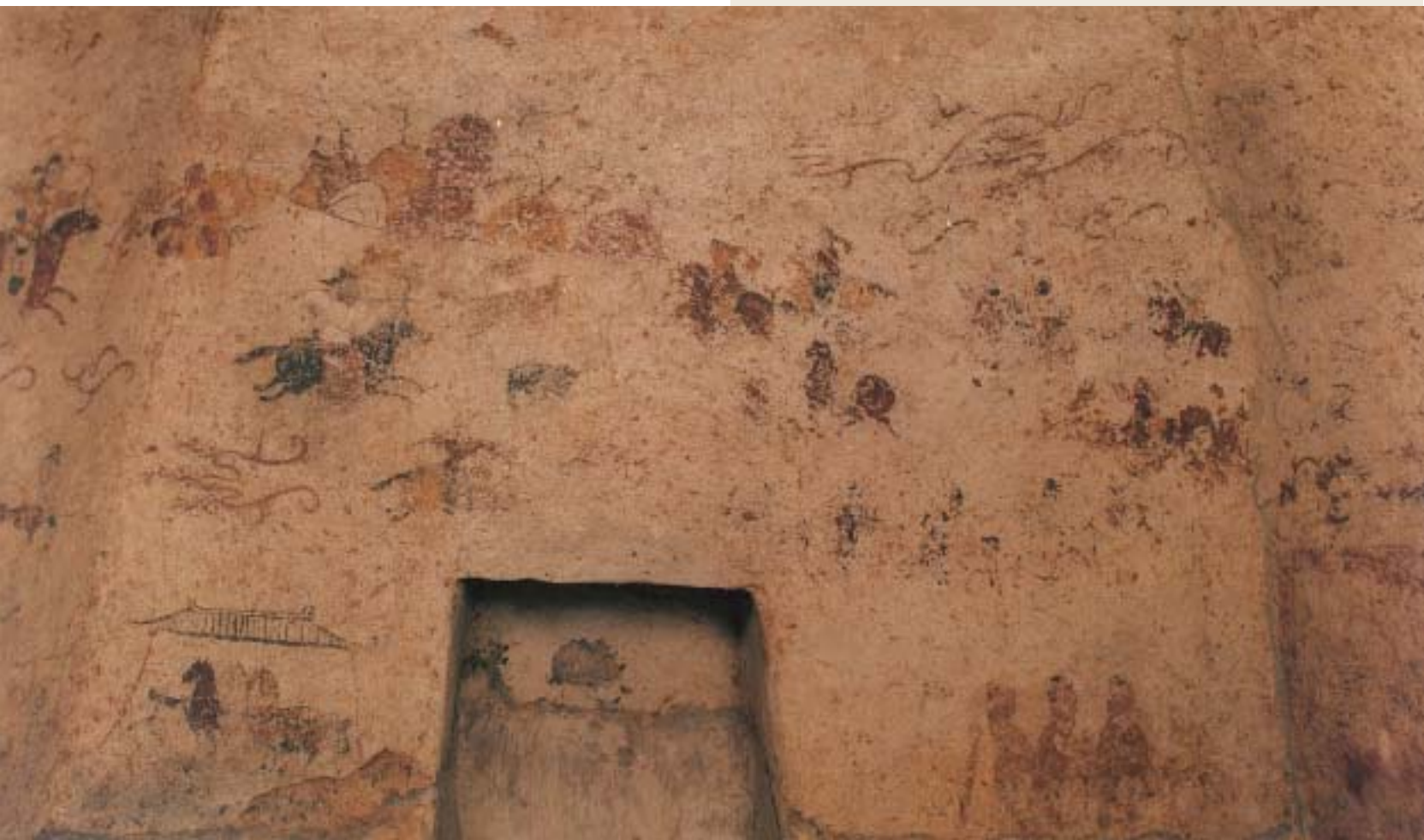


실측도



청룡과 주작도 | 현실 동쪽벽과 남쪽벽

고구려 후기 벽화에 성행하는 사신이 여러 별자리들과 함께 등장하였다. 동쪽벽의 청룡은 삼족오(三足鳥)가 있는 해와 함께 표현되었고, 남쪽벽 상단에 위치한 주작은 일곱 개의 별로 이루어진 별자리와 변형된 구름무늬와 함께 그려졌다.



청룡



주작



백호도와 달 | 현실 서쪽벽

사신 중 서쪽을 상징하는 백호는 기다란 몸체에 머리와 무늬에서 호랑이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려고 하였다. 앞부분의 둥근 원 안에 있는 두꺼비는 달을 상징한다.



현무도와 묘주 부부상 | 현실 북쪽벽

북쪽의 수호신 현무는 정좌한 묘주 부부상 옆에 조그맣게 배치되었다. 위로는 북두칠성과 직녀성이 자리해 있다.

수렵도 부분 | 전실 남쪽벽

수렵도 중에서 이 부분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여 내용을 잘 알 수 있다. 힘차게 달리는 말 위에서 사냥꾼은 앞에 있는 호랑이를 향하여 활을 쓰고 있는데 색채나 기법, 묘사력이 뛰어나다.





행렬도 | 전실 동쪽벽

행렬은 전위, 중앙, 후위로 삼등분 되어 있는데 전, 후위에는 말을 탄 관리들이 있으며 주인공은 중앙에 수레를 타고 있다. 모두 90여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호위무사들 없이 말 탄 관리들만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적이다. 전체 구성은 안악3호분과 비슷하지만 규모는 작다.



행렬도 모사도

6

용강대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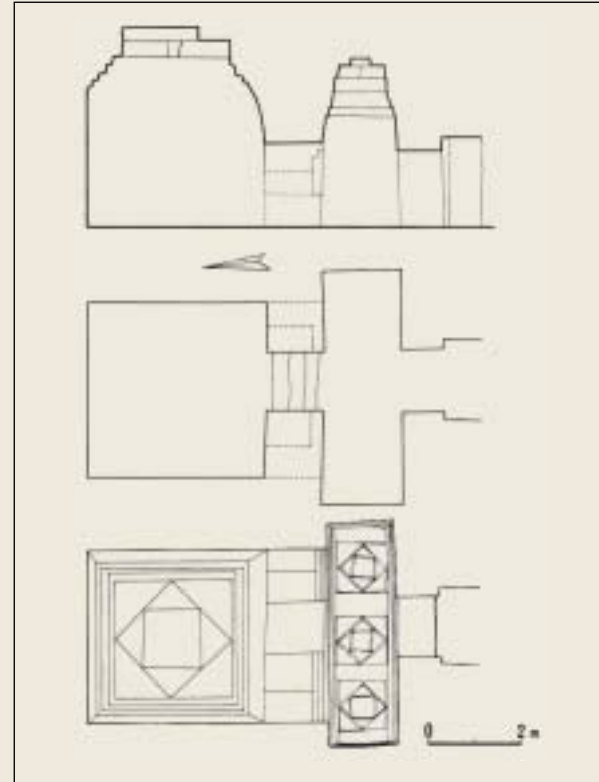
5세기, 남포시 용강군 용강읍

전망이 좋은 구릉 위에 위치한 용강대묘는 석실봉토분으로 연도, 전실, 현실이 있고, 사잇길 양편에 벽감이 있는 점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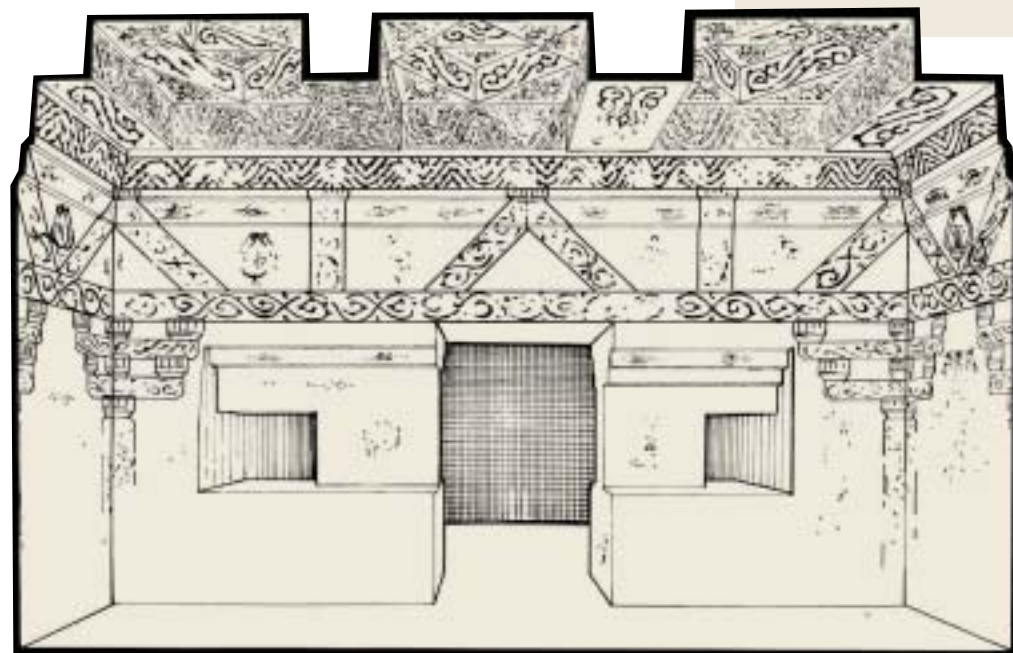
회벽 위에 벽화를 그렸는데 대부분 박락되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인물과 구름무늬, 불꽃무늬, 기둥과 도리 등이 보인다. 특기할만한 사항으로 보기드문 성곽도가 남아있어 고구려 건축연구에 참고가 된다.



용강대묘



실측도



전실에서 북쪽을 바라본 투시도



전실 천정구조

장방형의 전실 천정을 세 구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천정 윗부분은 말각조정으로 마감하였다.



연꽃무늬 | 전실 동벽

당초문이 새겨진 거꾸로 된 '人'자형 소슬 사이에 연꽃이 측면으로 그려져 있다.



성곽의 모사도

성곽도 | 전실 남쪽벽

누각과 담, 저택이 있는 성곽을 그렸는데 박락이 심해 알아보기 어렵다. 당시의 성곽의 형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7

쌍영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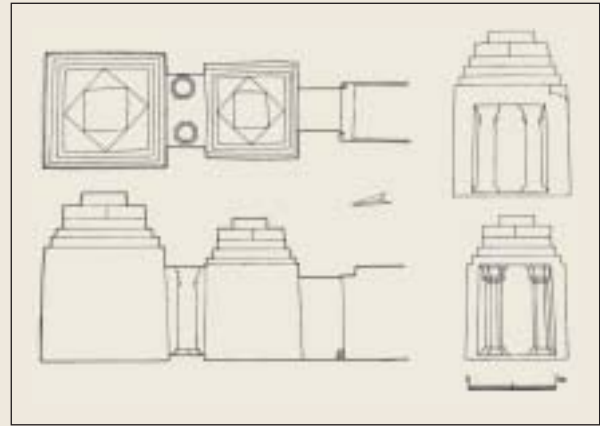
5세기 후반, 남포시 용강군 용강읍

쌍영총은 대표적인 중기 벽화고분으로 말각조정(말갈조)의 천정 구조에 전실과 현실로 이루어진 무덤 구조를 지닌다. 특히 전실과 현실 사이에 독특하게 두개의 팔각기둥이 있어 쌍영총이라 부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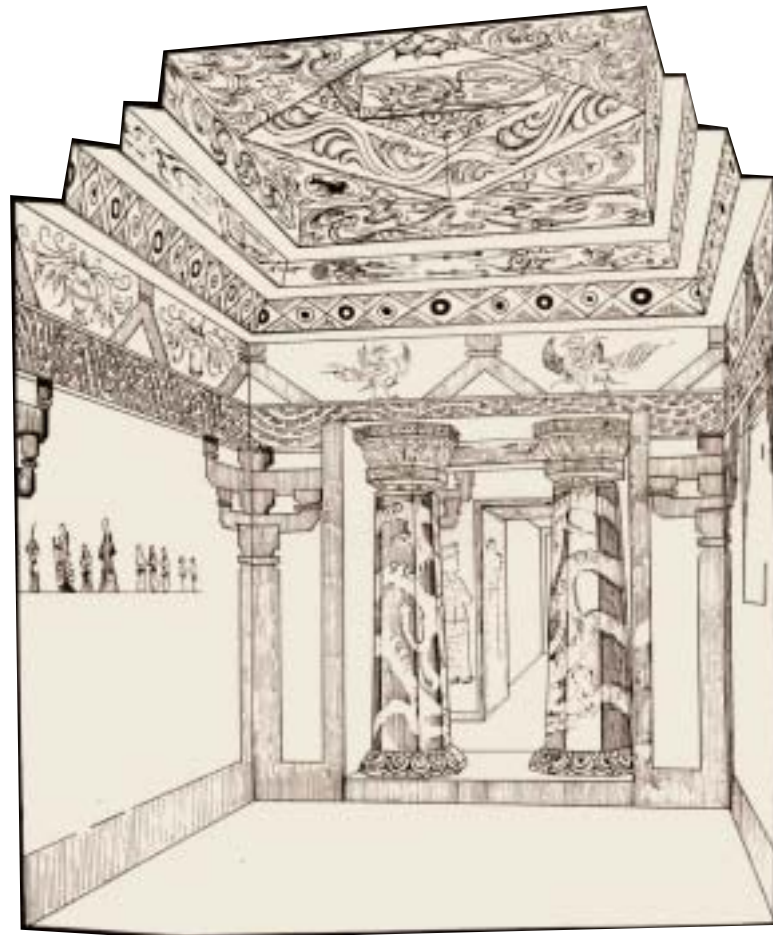
벽화의 내용은 생활풍속과 사신, 불교적 소재의 연화문, 화염문, 공양인 행렬도 등이다. 전실에 그려진 공양인 행렬도와 연도 동서벽의 인물도는 고구려의 복식연구에 큰 도움이 된다. 전반적으로 고구려인들의 생활상을 잘 보여 주며, 특히 전실천정의 역동감있는 화염문표현과 당초문 장식이 상상적인 천상세계의 화려한 면모를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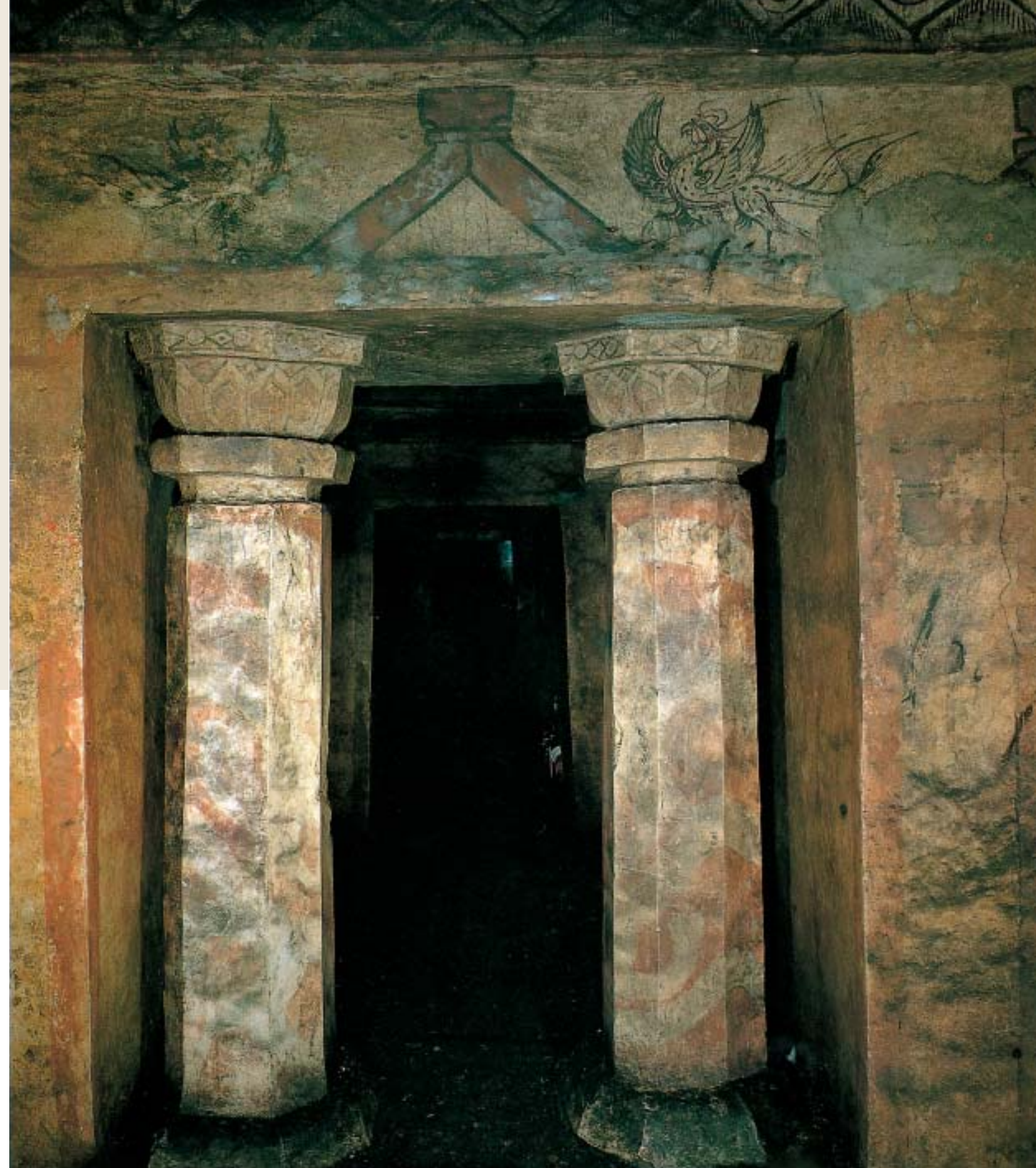
쌍영총



실측도



투시도, 현실에서 본 쌍팔각기둥



쌍팔각기둥 | 현실 남쪽벽 입구

다른 고분에서 보기도된 팔각기둥 두 개가 현실 입구에 세워져 있으며, 위에는 '人' 자형 양측 사이의 좁은 공간에 한 쌍의 주작이 그려져 있다. 청룡과 백호를 전실에, 주작과 현무를 현실에 나누어 그린 점에서 후기의 사신도와 큰 차이를 보인다.



현실 서쪽 천정



전실 천정



천정화 | 현실 천정

말각조정식의 천정 중앙에 활짝 핀 연꽃을 크게 그려넣었다. 꽃잎 끝이 날카로우면서 힘이 있으며, 주위의 율동적인 장식문양은 화려하고 생동감을 준다. 같은 무덤의 전실 천정에도 유사한 연꽃과 장식문양이 그려졌지만 여기에는 삼족오가 있는 태양과 두꺼비가 있는 달이 추가되었다.



묘주 부부상 | 현실 북쪽벽

현실 북벽 중앙에 묘주 부부가 호화로운 장막 아래 나란히 앉아 있고, 장막 위로는 건축물의 구조가 그려져 있어 마치 생전에 생활을 하던 실내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 옆에 쌍현무가 조그맣게 그려져 있는데, 묘주 부부상과 현무가 함께 그려진 예는 약수리 고분에서도 보인다. 전반적으로 벽화의 수준이 전 시대에 비해 완속해 있다.



현실 북쪽벽 상단 부분도



공양행렬도 | 현실 동쪽벽

현재는 많이 훼손되었지만 옛날에 찍은 사진을 통해 원래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왼쪽 맨 앞에 향족을 머리에 받쳐든 시녀가 앞장 서고 뒤로는 목직한 가사를 걸친 스님, 그리고 또 한 사람 시녀 뒤에 검은 옷에 주름 치마를 입은 묘주의 부인이 뒤따르고 있다.



훼손되기 전의 공양행렬도

8

수산리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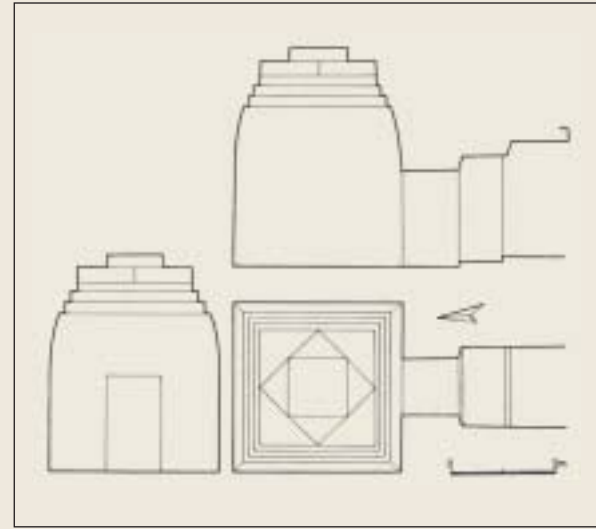
5세기 후반, 남포시 강서구역 수산리

비교적 근래에(1971) 발굴된 수산리고분은 연도가 있는 단실묘이다. 벽화는 묘실의 벽과 천정에 그려졌으며 입구인 연도에는 수문장을 배치하였다.

수산리고분벽화는 힘이 있으면서도 간결한 고구려 화풍을 잘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섬세하고 우아한 기법으로 인물상을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색동주름치마를 입은 우아한 복장의 여성상은 일본 다카마츠 고분의 여인도와 유사하여 고구려와 일본 간의 교류를 짐작케 한다.



수산리고분



실측도

묘실 서쪽벽과 북쪽벽 모서리의 인물도



묘주 부인상 | 묘실 서쪽벽

일산 아래 여주인공은 홍색 단을 댄 저고리에 색동주름치마를 입고 얼굴에 연지를 찍은 화려한 모습이다.



시녀상 | 묘실 서쪽벽

고구려 고분벽화 중 가장 아름다운 여성상으로, 화장한 얼굴과 아름답게 꾸민 머리, 긴 저고리에 주름치마를 입은 우아한 자태는 인물화 표현의 원숙한 경지를 보여준다.



행렬도 | 묘실 서쪽벽

묘주 부부가 뭇시종들을 거느리고 행렬하는 이 장면은 이전의 고분벽화에서 무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진행된 장대한 행렬 장면과는 달리 나들이를 나선 듯 가벼운 분위기이다. 묘주 부부 앞에는 광대들의 장대타기, 공던지기, 바퀴던지기와 같은 곡예 장면이 펼쳐져 흥겨움을 돋군다.



행렬도 모사도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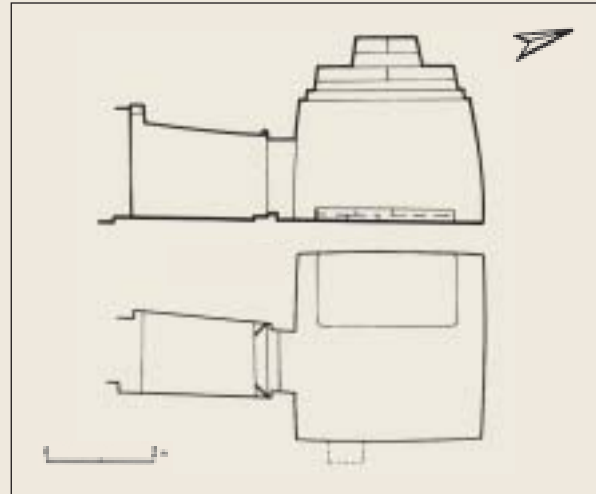
안악2호분

5세기말~6세기초, 황해남도 안악군 대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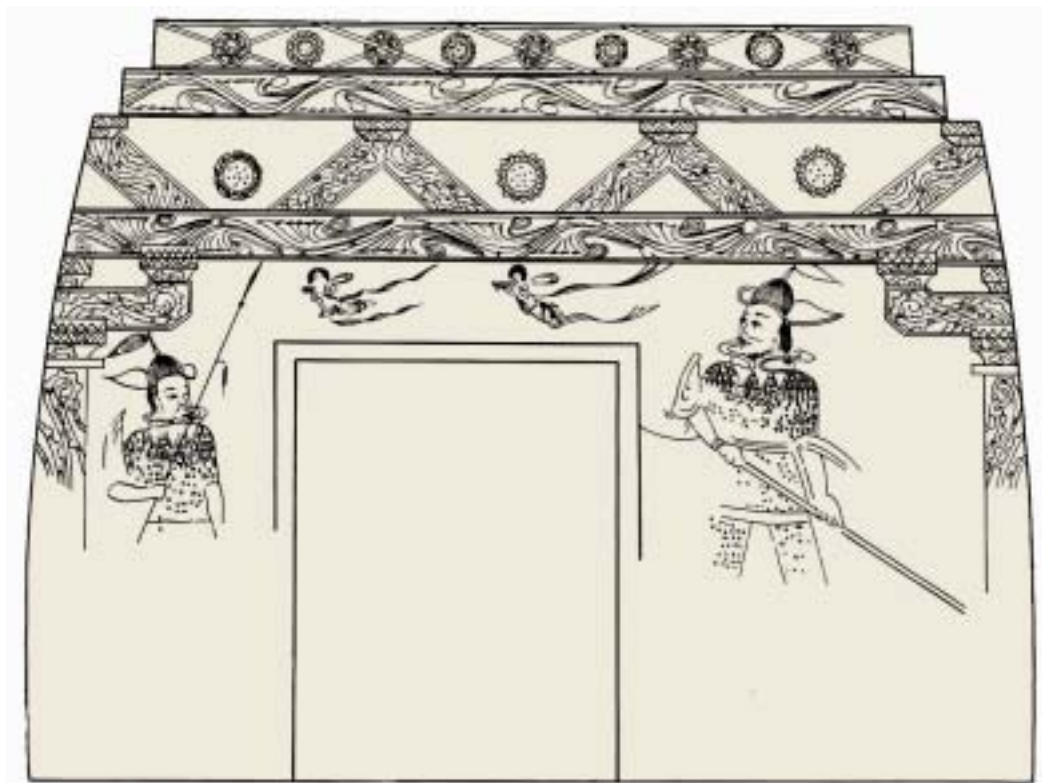
안악1호분 뒤에 위치한 이 무덤은 연도와 묘실로 구성된 단실묘인데 묘실의 동벽에는 벽감이 있고 천정은 평행삼각고임이다. 묘실 벽에 산화공덕비천상(散華功德飛天像)과 여인의 공양행렬 장면과 같은 불교적 주제가 그려진 것이 특징이다. 연도 좌우의 무사 대열과 묘실의 인물상들이 돋보인다. 벽화는 검정, 빨강, 파랑, 녹색, 노랑 등의 다양한 색채와 농담의 변화가 풍부하여 매우 회화적이다.



안악2호분



실측도



묘실 남벽의 묘사도



묘실의 북쪽 천정화

말각조정식 천정구조의 각 천정 모서리와 받침석에 화려한 덩굴무늬와 보륜문, 다양한 연화문이 그려져 있다.



비천상 | 묘실 동쪽벽

연꽃을 받쳐들고 천의를 날리며 비행하는 2구의 비천상 아래에 연화공양을 드리는 세 인물이 보인다. 우아한 울동감이 느껴지는 비천의 모습은 고구려 비천상의 백미라 할 수 있는데, 당시 고구려인들의 불교적 신앙심의 깊이를 엿볼 수 있다.



천정화 | 묘실 천정의 중앙

고구려 고분 벽화 가운데 불교적 색채가 강한 고분이다. 묘실의 천정 중앙에 다섯 겹의 만개한 연꽃이 정면으로 표현되었으며 그 주위에는 측면으로 그려진 연꽃들로 둘러싸여 있다. 바로 아래층의 삼각고임돌에도 다양한 형태의 연꽃들이 대칭으로 정갈하게 묘사되었다. 아름다운 연꽃으로 뒤덮힌 천정화의 조화와 구도가 돋보인다.



묘실 서북 모서리 벽화

실제 목조 구조물을 연상시키듯 묘실 네 모서리에 그려진 기둥위에 두공(斗拱)이 묘사되었다. 그 위로 들보, '사'자형의 소슬과 등근 연화가 함께 보인다. 특히 이 기둥 구조물의 표면에는 화려한 변형의 구름무늬와 연꽃 줄기가 장식되어 천상세계의 가옥인 듯 신비스러운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인물도 | 묘실 서쪽벽

중앙에 여주인공이 서있고 앞뒤로 작게 그려진 여섯 명의 시녀가 따르고 있다. 일렬로 늘어선 긴 행렬의 처음과 끝에는 화려한 머리장식을 한 일곱 명의 부인이 그려졌는데, 아마도 여주인공과 관련된 인물들인 듯하다. 연꽃 줄기로 장식된 기둥구조물과 천정 고임부에 보이는 활짝 핀 연화장식이 불교적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인물도 | 묘실 서쪽벽의 중앙

서벽의 긴 인물 행렬도 가운데 중앙에 있는 여주인공과 시녀들의 세부도이다. 벽면이 심하게 훼손되어 잘 보이지는 않으나 오른쪽의 크게 묘사된 여주인공의 화려한 머리장식이 눈에 띈다.

10

덕화리1호분

5세기말~6세기초, 평안남도 대동군 덕화리

봉화산 남쪽기슭에 동서로 나란히 위치한 2개의 무덤 중 서쪽에 있는 것이 1호분으로 연도와 묘실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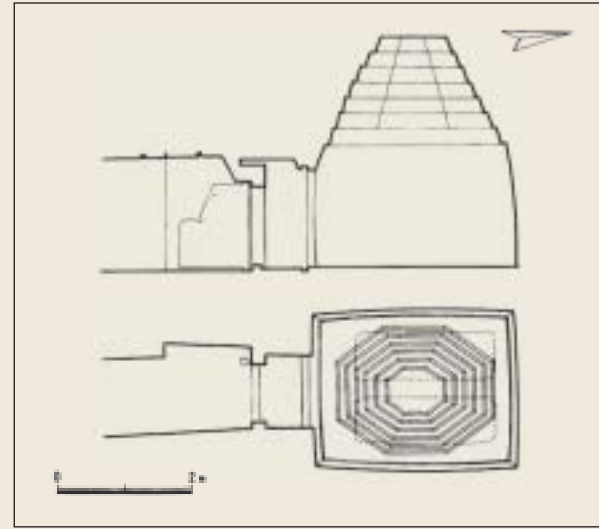
벽화는 묘실의 사방에 사신을 배치하여 이전보다 사신도가 강조되고 있으며, 북벽의 현무 위에 인물이 그려진 점이 특징이다. 또한 천정에는 해와 달, 별, 구름, 연꽃 등이 그려져 있는데 특히, 별자리 그림이 많아 당시의 천문도라 할 수 있다.

하늘 연꽃 | 묘실 천정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팔각형의 천정 고임부 중앙에 하늘을 상징하는 연꽃이 붉은 색의 구름무늬와 함께 큼직하게 장식되었다. 뾰족하게 처리된 꽃잎의 아래 부분에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서기(瑞氣)가 표현되었으며, 중앙에는 작은 꽃씨들이 장식되었다. 하늘을 상징하는 천정의 중앙에 연꽃을 표현한 고구려인들의 불교적 천상관을 엿볼 수 있다.



덕화리1호분



실측도

묘실의 북쪽 천정화

천정 벽면의 4단에 걸쳐서 붉은 선으로 복두 칠성을 표현하고 주위에는 각종 장식무늬와 별자리를 그려 일종의 천문도를 이루었다.



현무도와 인물도 | 묘실 북쪽벽

거북의 몸을 세번 감은 뱀이 두 개의 반원을 그리면서 감긴 채 머리를 들어 거북을 마주보고 있다. 현무 위에는 모주로 보이는 인물과 그 뒤를 따르는 부인, 아이들이 있다.





묘실 동쪽 천정벽화

팔각형의 평행고임들 위로 큼직한 귀갑무늬가 시원스럽게 펼쳐지고, 나머지 빈 공간을 붉은 색의 구름무늬와 별자리 장식으로 채웠다. 화면 중앙의 육각형 귀갑무늬 안에는 해를 상징하는 세 발 까마귀가 붉은 비랑의 원 안에 그려졌다.

11

덕화리2호분

5세기말~6세기초, 평안남도 대동군 덕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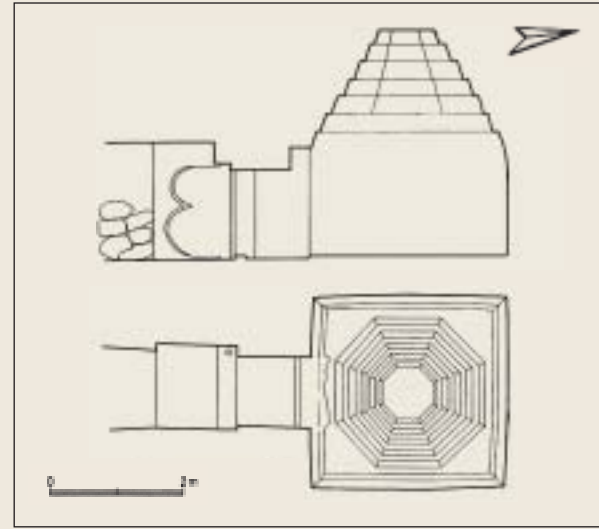
봉화산 남쪽기슭 쌍무덤 중 동쪽에 있는 단실묘로 구조와 벽화 내용은 1호분과 비슷하여 같은 시대, 같은 장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 같다. 벽면에는 사신과 인물풍속, 기둥, 두공 장식 등이 그려져 있고, 천정에는 연속적인 귀갑문 안에 해와 달, 별, 구름, 연꽃 등을 그렸다. 특히 28개의 별자리 중에 는 명칭이 적힌 것도 있어 당시 천문지식 수준을 보여준다.

묘실의 동쪽 천정벽화

별자리와 해를 그린 천체도로 무덤의 천정을 하늘로 생각하였다. 붉은 색의 원안에 세 발 까마귀(三足鳥)가 그려진 일상(日像)이 보인다. 주위에는 별자리와 구름무늬가 장식되었으며, 일상의 아래층 고임돌에 두개의 원으로 연결된 별자리와 그 옆에 '벽성(陽星)'이라는 이 별자리의 명칭이 보인다.



덕화리2호분



실측도



묘실의 서쪽 천정벽화

팔각형 천정에 그려진 일상의 맞은편에는 하얀 바탕의 원 안에 달을 상징하는 두꺼비와 옥토끼가 묘사된 월상(月像)이 있다. 역시 달 주위에 별자리와 구름무늬가 장식되었다.



월상(달) | 묘실 서쪽 천정

지금까지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달을 상징하는 두꺼비만을 그렸는데 여기에서는 토끼도 함께 등장하였다. 이러한 표현방식은 평양 개마총의 벽화에도 있다.



12

호남리사신총

6세기 초반, 평양시 삼석구역 성문리

이 지역에는 원래 고구려 고분들이 산재한 곳인데 그 중 가장 큰 것이 호남리사신총이다. 연도와 묘실로 구성된 이 무덤은 대리석으로 축조되었으며 벽화는 돌 위에 직접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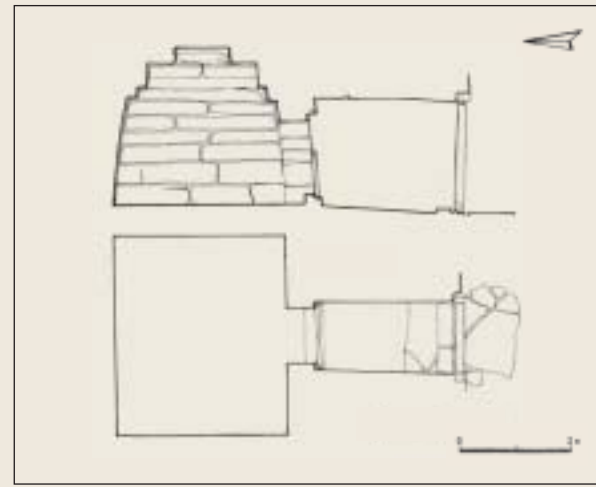
벽화의 내용에서 인물화나 풍속화가 사라지고 사신도(청룡·백호·주작·현무) 위주로 바뀌게 된 것은 고구려 벽화의 변천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청룡도 | 묘실 동쪽벽

머리를 뒤로 돌려 꼬리쪽을 바라보는 특이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후기 사신도의 청룡이 머리에 2개의 뿔을 가진 데 비하여 이 청룡의 머리에 난 외뿔은 5세기의 전통을 따른 것이다.



호남리사신총



실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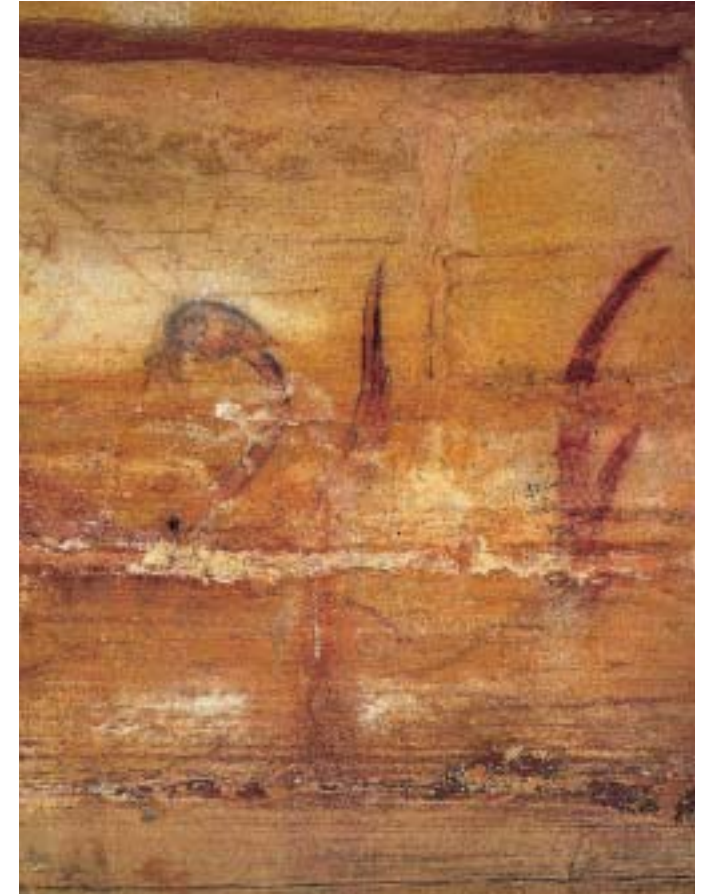
백호도 | 묘실 서쪽벽



현무도 | 묘실 북쪽벽



주작도 | 묘실 남벽 동쪽벽



주작도 | 묘실 서벽 남쪽벽

13

진파리4호분

6세기 중엽, 평양시 역포구역 용산리

평양시 동남쪽 재령산 언덕에 고구려 고분들이 산재해 있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이 진파리고분군으로 동명왕릉의 뒷편에 자리 잡고 있다. 무덤은 단실묘로 연도와 묘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판석에 회칠을 하고 벽화를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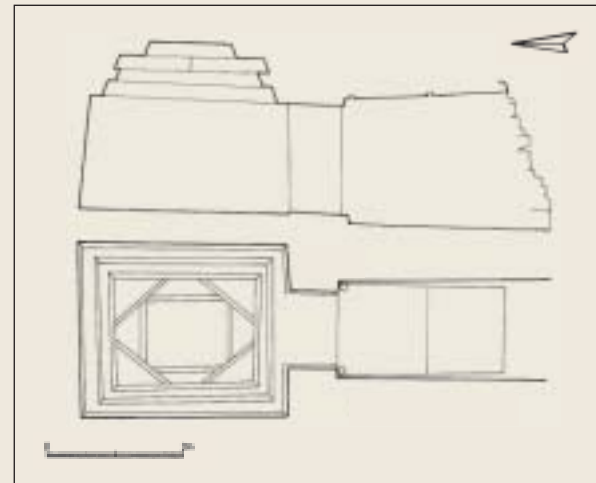
벽화는 사신, 해, 달, 신선이 그려진 묘실과 연꽃, 인동, 별자리를 비롯한 장식무늬가 그려진 천정, 수목과 바위절벽으로 둘러싸인 연못이 있는 연도로 구성된다. 연도의 산수표현은 5세기 산악·수목 표현보다 훨씬 발전된 단계를 보여준다. 고구려 시조인 동명왕릉 구역에 있기 때문에 왕족의 무덤으로 보인다.

묘실 천정화 | 묘실 서쪽과 북쪽 천정모서리

천정과임부에 만개한 연꽃과 인동당초문, 병풍을 두른 듯한 장식무늬를 배치하였다.



진파리4호분



실측도



수목과 괴석 | 연도 동쪽벽

동산 위의 괴석과 쪽 뺨어올라간 수목으로 채워진 이 산수표현은 5세기의 도안적인 산악·수목 표현에서 벗어나 한층 사실적이고 회화적인 경지를 보여준다.



연꽃무늬 | 묘실 천정

8엽의 평면연꽃이 인동잎에 둘러싸여 있는데 날렵하게 휘어진 인동잎이 운동감을 전해준다.



14

진파리1호분

6세기 후반, 평양시 역포구역 용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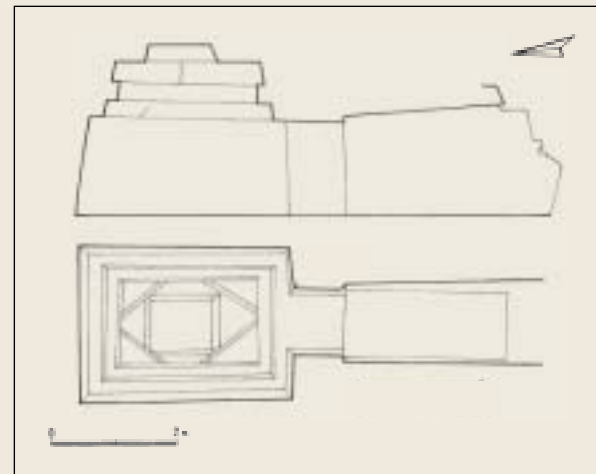
진파리4호분과 같은 구역에 있는 1호분은 단실묘로 봉분의 한변 길이가 30m에 이르고 높이가 7m정도 되는 큰 규모이다.

벽화는 사신도, 수목, 비운·인동문이 그려진 묘실과 해, 달, 인동에 싸인 연꽃이 그려진 천정, 수문장이 그려진 연도로 구성된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수목 표현 중 가장 세련되고 사실적인 경지를 보여주는 점에서 중요하다. 고구려 고졸 장군의 묘실로 추정되고 있다.

묘실에서 남쪽·입구쪽으로 본 모습



진파리1호분



실측도



묘실 남벽의 모사도



구름 위의 새 | 묘실 동쪽벽 부분



묘실 남쪽 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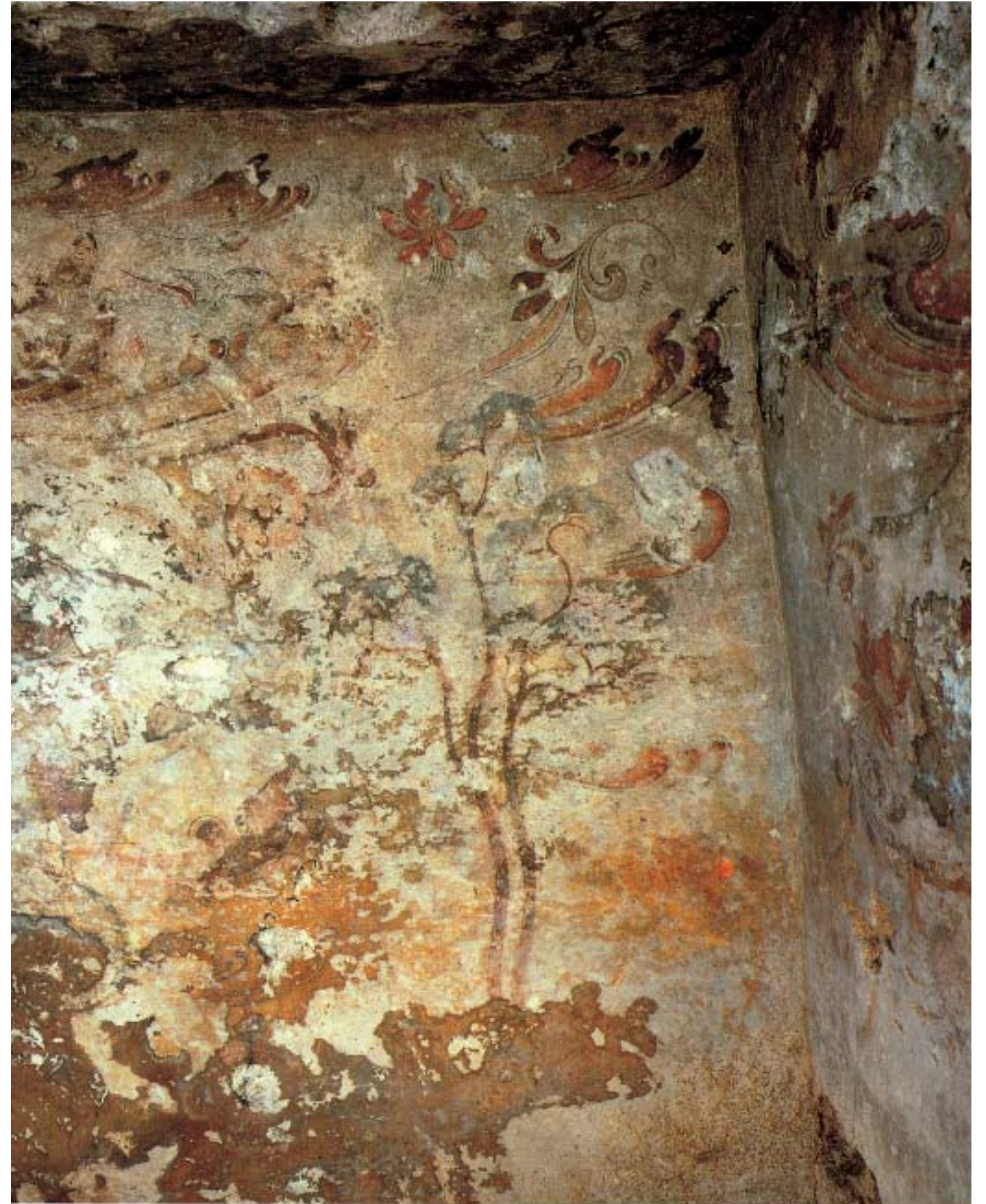
청룡도 | 묘실 동쪽벽

힘차게 휘날리는 비운문과 인동문을 배경으로 동쪽 벽면 중앙에 자리잡은 청룡은 곧추세운 머리, 크게 내디딘 앞발, 유연하게 뻗은 몸통, 파도치는 듯한 꼬리 등의 표현을 통해 울동감과 더불어 바람을 뚫고 하강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소나무 | 묘실 북쪽벽 서편

현무가 배치된 북쪽벽 좌우에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진 수목도를 대표하는 두그루의 소나무가 있다. 유려하게 뻗어오른 줄기와 구불구불한 잔가지, 가지마다 덩어리진 연한 녹색의 솔잎 등의 표현에서 훨씬 발전된 기량을 볼 수 있다.



묘실 북쪽벽 동편의 소나무

15

강서대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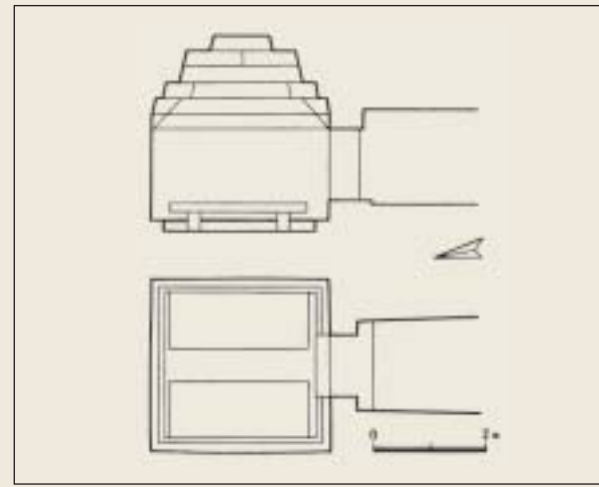
6세기 후반~7세기 전반, 남포시 강서구역 삼묘리

삼묘리에는 세 개의 고분이 있는데 남쪽의 큰 것이 강서대묘로 고구려 후기벽화를 대표하는 작품이 있다. 봉분은 석회와 진흙을 번갈아 다져 올렸고 묘실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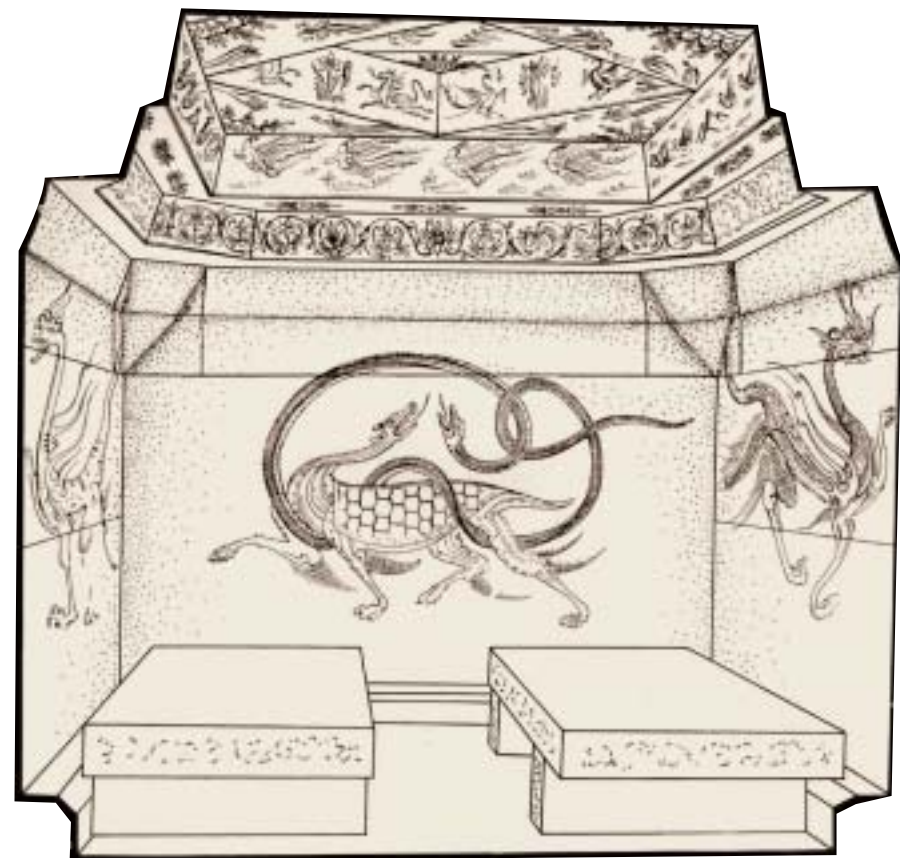
벽화는 돌 위에 직접 그렸는데, 묘실에는 사신도가 천정에는 서수(瑞獸), 선인, 비천, 연꽃, 인동당초, 구름무늬 등이 있다. 특히, 사신도는 뛰어난 상상력과 유연하고 힘찬 필치가 어우러져 고구려 고분벽화의 걸작으로 손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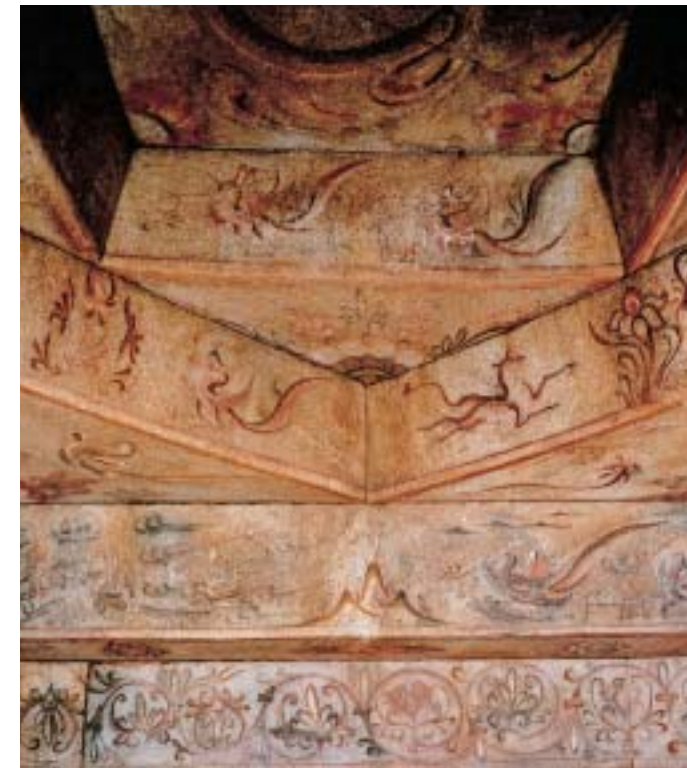
강서대묘



실측도



묘실의 투시도



묘실 천정의 천정화

말각조정의 벽면에 선인, 서수(瑞獸), 연화문, 산악문이 환상적으로 펼쳐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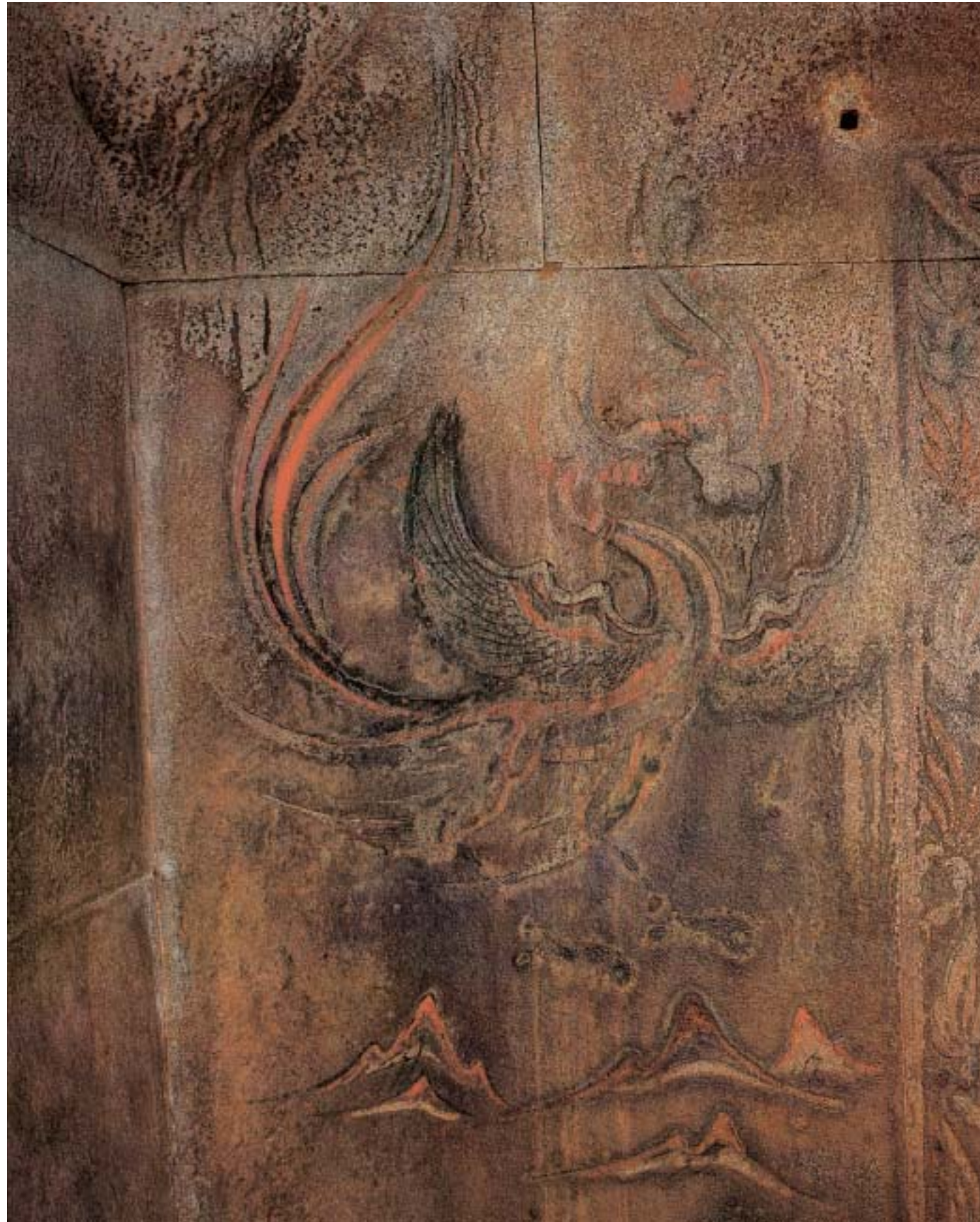
백호도 | 묘실의 서쪽벽

장중하고 웅망스러운 모습과 물결치는 듯한 곡선미가 뛰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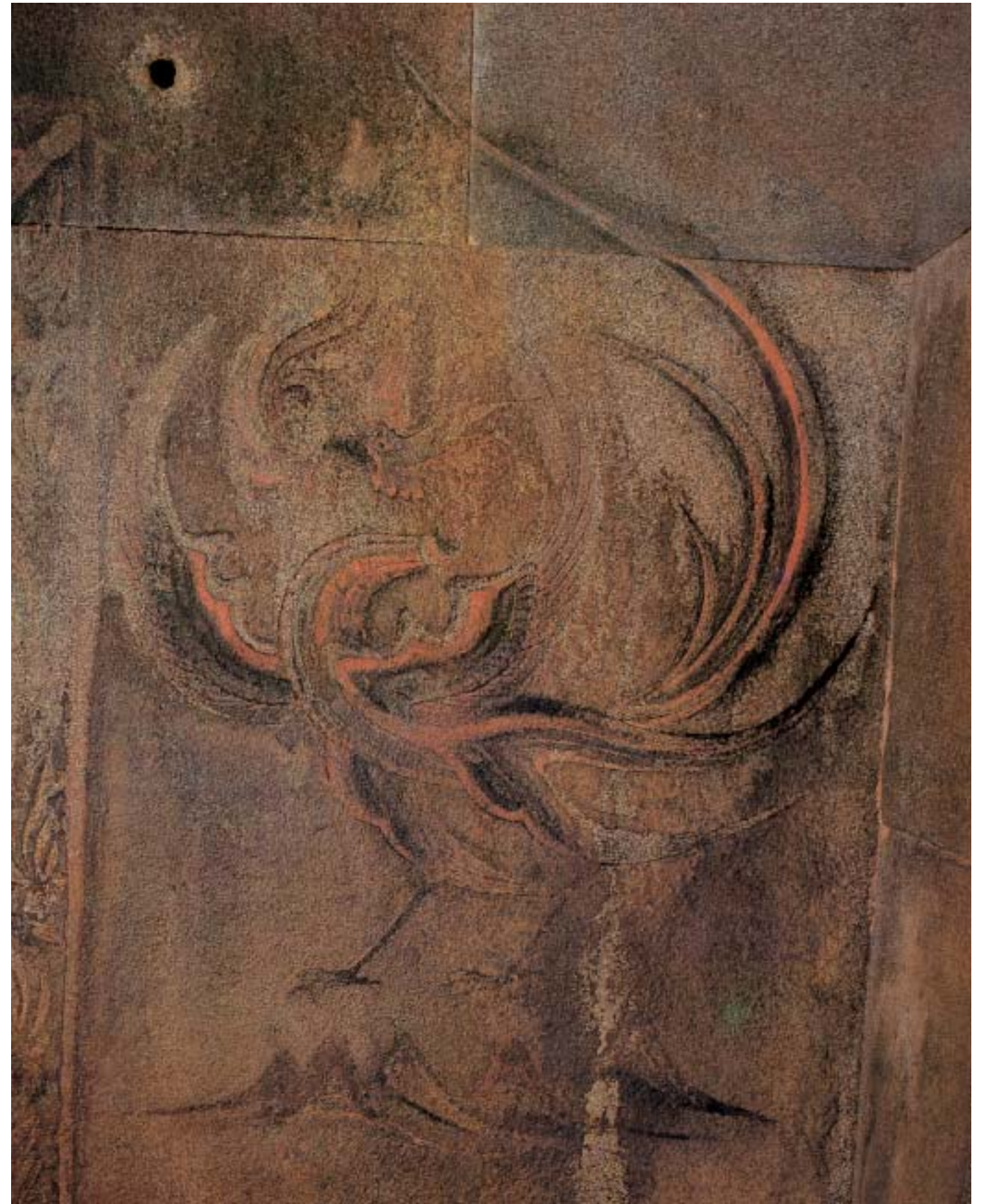
현무도 | 묘실의 북쪽벽

거북의 몸통을 한번 크게 휘감아 올라 다시 자신의 머리와 꼬리를 교차시켜 팽팽한 곡선을 만든 뱀이 목을 틀어 돌아보는 거북과 호응하여 완벽한 조화미를 만들어냈다.



주작도 | 묘실 남쪽 입구 양쪽 벽

남쪽 입구의 좌·우벽에 대칭으로 그려진 주작도이다. 주작은 남방을 상징하는 상상속의 신수(神獸)로서, 오색으로 신비스럽게 장식된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준다. 다리를 굽히고 날개를 힘껏치켜 올려 막 비상하려는 자세가 역동적으로 표현되었다. 주작의 아래 부분에는 흰색, 붉은색, 검은색으로 묘사된 산악의 여러 봉우리들이 위 아래로 원근감 있게 배치되었다.





청룡도 | 묘실 동쪽벽

세련된 구성과 색채, 조형성이 가장 뛰어난 사신도로 시남고 용맹하며 속도감있는 화면이 보는 사람을 압도케 한다. 고구려 청룡도 중 백미라 할만하며 강서대묘의 대표적 작품이다.

16

강서중묘

6세기 후반~7세기 전반, 평안남도 남포시 강서구 삼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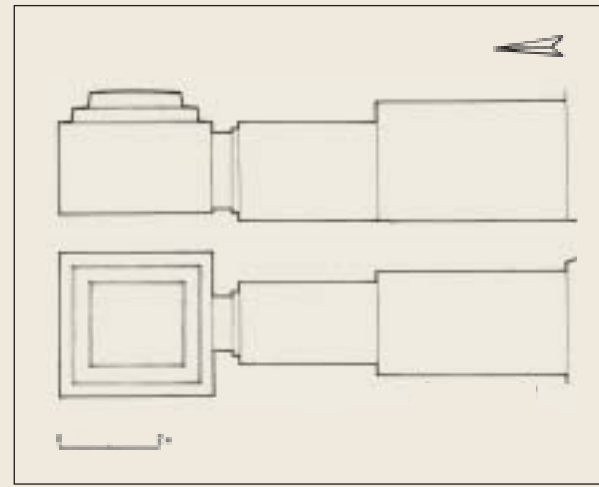
삼묘리에는 이른바 강서삼묘가 있는데 남쪽에 있는 것이 강서대묘이고 그 뒤 나란히 있는 두개의 무덤 중 서쪽이 강서중묘로 강서대묘와 함께 사신도로 유명하다.

현실의 네 벽에는 사신도를 그렸고 천정에는 인동당초문, 연화문, 구름무늬와 봉황, 해와 달을 그렸다. 이 무덤을 유명하게 한 것은 뛰어난 솜씨의 백호도와 주작도로, 고구려의 진취적 기상과 수준 높은 채색 그리고 묘사력을 보여준다. 강서대묘와 더불어 고구려 사신도를 대표한다.

묘실 동쪽의 천정화



강서중묘



실측도

청룡도 | 묘실 동쪽벽

머리를 세워 남쪽을 향해 내딛는 웅망한 모습이 다. 몸체에 비늘을 표현하지 않은 대신 적, 황, 녹의 강렬한 원색을 칠하여 생생한 느낌을 준다.



현무도 | 묘실 북쪽벽

길짐승처럼 다리가 굵고 긴 거북과 힘없이 거북의 몸을 두번 감은 뱀이 결합되어 있다. 현무의 비중이 작아진 대신 산악표현이 강조되고 있다.



주작도 | 묘실 양쪽면

붉은 구슬을 입에 물고 날아갈 듯 날개를 퍼덕이고 있는 이 주작도는 강서대묘에 비해 색채감이 강조되면서 단아한 모습을 하고 있다.



남벽 동쪽면



남벽 서쪽면



백호도 | 묘실 서쪽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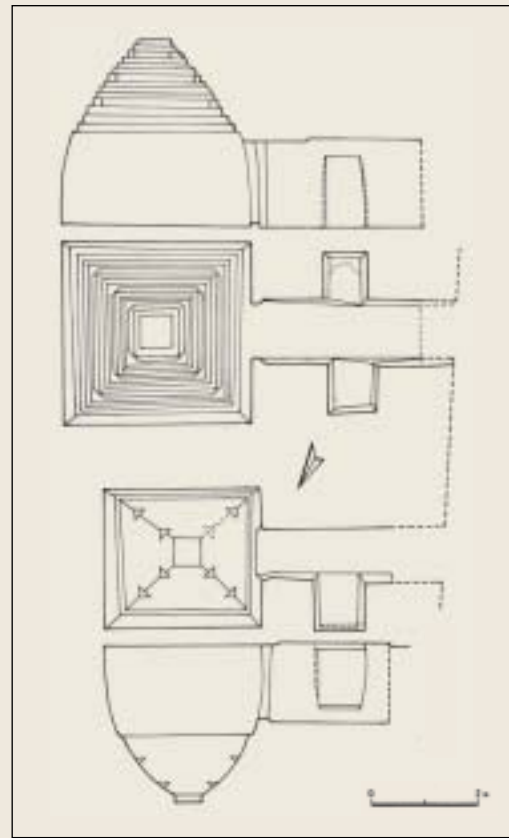
앞으로 내달리는 박력있는 백호의 모습은 고구려인의 진취적인 기상을 대변한다.
허를 내밀지 않은 점에서 강서대묘의 백호도와는 차이가 있다.

17

통구 제12호분

4세기말~5세기초, 중국 길림성 집안시

이 무덤은 하나의 입구에 현실이 두 개가 있는 보기드문 쌍분으로 구조가 독특하며 벽화의 주제가 인물상, 수렵, 전투, 생활상 등으로 다양해 고구려의 문화와 풍습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특히, 고구려의 상무적(尙武的)인 정신이 전투와 수렵도에서 생생하게 표현되고 있다. 벽화의 표현상태는 많이 탈락되어 알아보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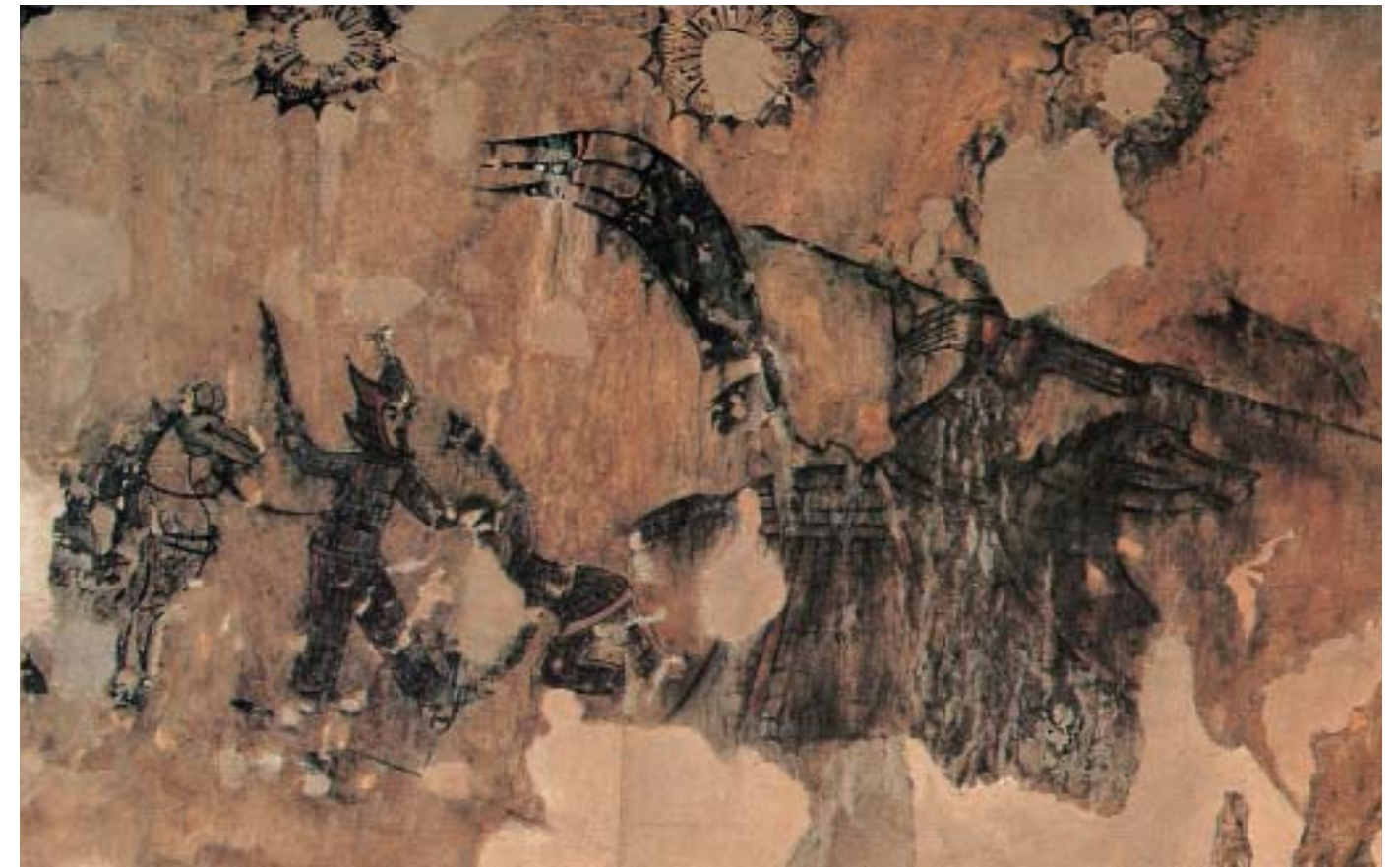
실측도



묘실의 건물 묘사도

남측 묘실에서 바라본 무덤입구

묘실 입구와 무덤 입구 사이의 용도(甬道) 양편으로 두 개의 감실(龕室)이 보인다. 묘실의 네 벽은 천정과 거의 경계부분에서 안쪽으로 경사지어져 안정된 구조를 보여준다. 벽면은 많이 훼손되어 표현된 그림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전투도 | 북측 묘실 좌측벽

고구려 고분벽화의 전투도 중 가장 실감나는 장면이다. 쓰러진 채 칼을 잡으려 하는 적을 못이 박힌 전투화로 막은 후 칼을 높이 쳐들어 적의 목을 내리치려는 순간의 긴장감이 넘친다. 그림의 오른쪽에는 말을 탄 기사가 긴 창을 들고 달리고 있다. 무사들은 갑옷을 입었으며 말의 머리는 철제 마구로 무장되었다.



연꽃그림 | 북측 묘실 천정

해, 달, 별자리는 그려지지 않고 천정 전체가 연꽃 넝쿨로 무성하게 덮여있다. 양옆으로 늘어진 연잎 사이로 활짝 핀 연꽃과 아직 피지 않은 연꽃 봉우리들이 붉은 빛으로 묘사되었다. 불국토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어 하는 사자(死者)의 염원이 천정의 연꽃 표현을 통해 잘 드러나 있다.

18

각저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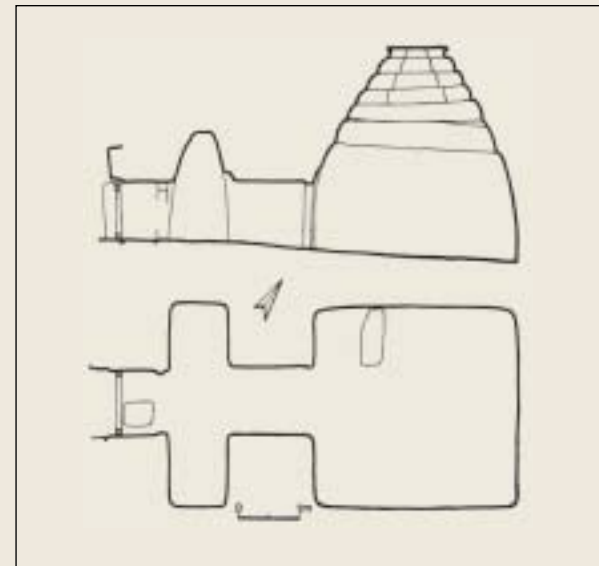
5세기 전반, 중국 길림성 집안시 우산남록

유명한 씨름도가 있는 무덤으로 각저총이란 명칭도 이 그림에서 유래했다. 무덤 구조는 전실과 현실 두 칸이며, 특히 전실과 현실의 벽면에 가지가 우거진 거대한 나무들을 여러 그루 그려 넣은 점이 특징적이다. 벽화 내용은 생활 풍속이 중심이며 묘주 생활도의 장막과 천정 경계선에 화염문을 장식하였고 천정은 일상, 월상, 별자리 및 곡선적인 구름무늬로 뒤덮였다. 특히 두 부인과 함께 그려진 묘주의 그림은 고구려인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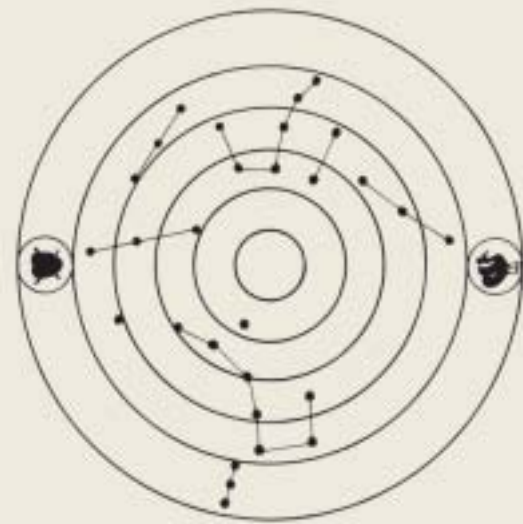
발굴당시보다 벽화가 그려진 상당부분의 회벽이 떨어져 나가 벽화가 심하게 훼손된 점이 아쉽다.

전실에서 입구 쪽을 바라본 모습

입구 양쪽에 가지가 무성한 두 그루의 나무가 서있다. 양 모서리에는 실제 가옥을 상징하는 두공이 딸린 기둥의 일부가 보이며 주변 공간에 곡선문양의 운기(雲氣)가 떠다니면서 이곳이 상서로운 공간임을 암시한다.



실축도



현실 천정의 별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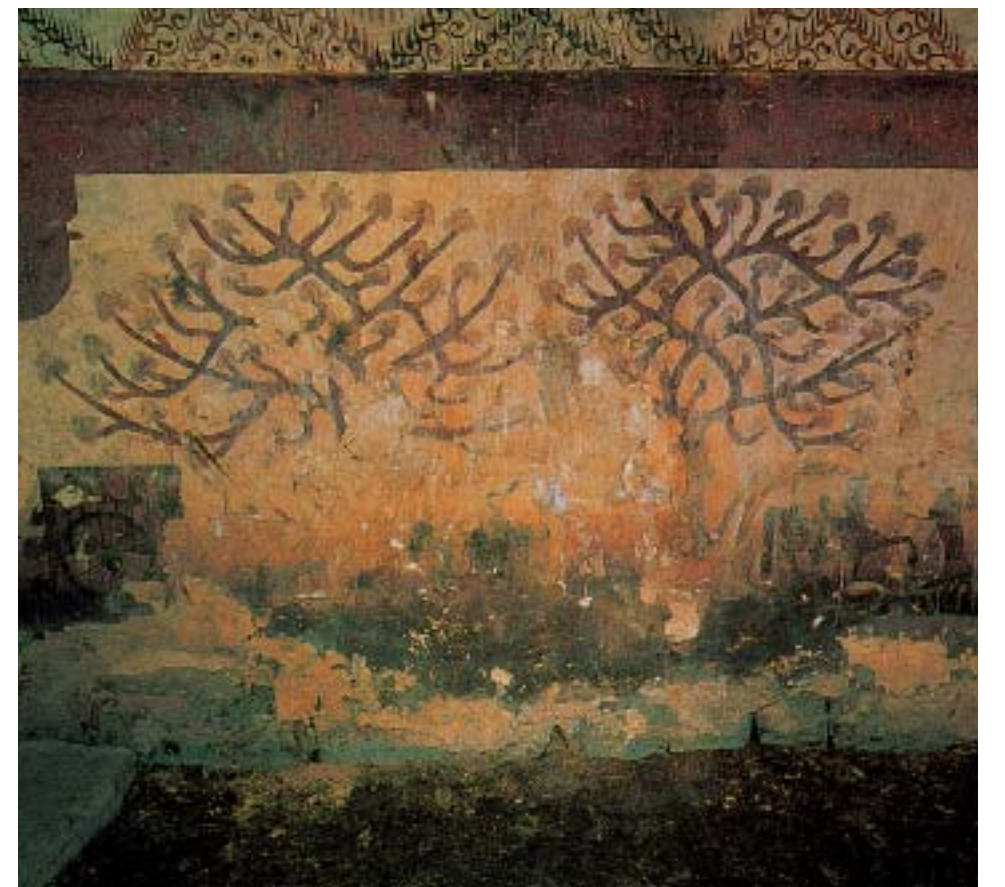
씨름도 | 현실 남쪽벽

이 씨름 장면은 현실 남쪽 벽면의 전체를 차지하는 주요 소재이다. 큰 나무 아래에서 살바를 잡은 두 장정이 힘을 겨루고 오른쪽의 지팡이를 짚은 노인은 심판을 보는 듯하다. 나뭇가지 위의 새들이 이 모습을 목을 뻗 채 구경하고 있다. 씨름 행사는 고구려인의 인기있는 운동종목이었으며 고대 장례(葬禮)의식 중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나무 아래의 말과 마부

| 현실 북쪽벽

가지와 잎이 무성하게 얽힌 두 그루의 거목 아래에 마차와 말, 마부가 묘사되었다. 묘주부부의 출행과 관련된 장면으로, 도안화된 장식적인 나무 형태는 고구려 초기 회화의 수목표현을 잘 보여준다.





주인공의 실내 생활도 (모사도) | 현실 동쪽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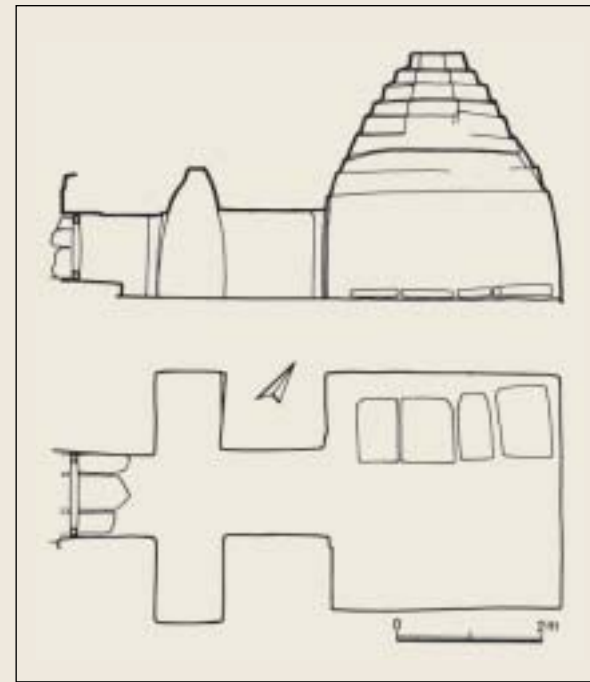
장막이 드리워진 실내에서 의자에 앉은 주인공이 무릎 꿇고 앉은 두 명의 부인과 차를 마시는 장면이다. 남자 주인공의 주변에 놓여진 칼과 활은 주인공이 무사의 신분임을 알려준다. 두 부인의 주름치마와 저고리를 통해 고구려 여인의 복식형태를 알 수 있고, 특히 오른쪽 여인의 2층 치마는 검은 단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 측면형의 묘주 생활도는 평양지역의 고분벽화에 보이는 정면형의 부부 초상화와 달리 주인공의 실내 생활을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다. 인물 그림 밑에는 기하학적인 곡선문양의 구름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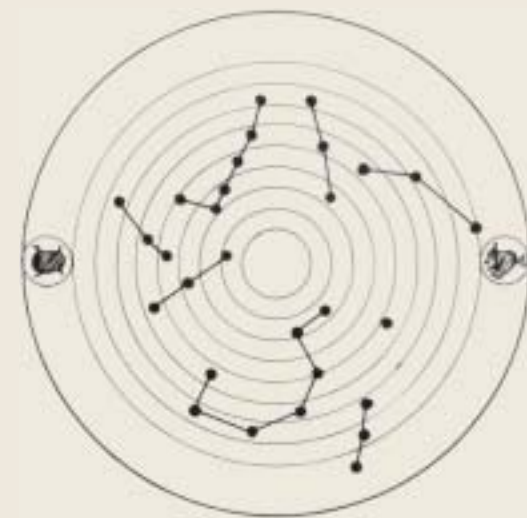
무용총

5세기 전반, 길림성 집안현 우산남록

잘 알려진 고구려의 수렵도와 무용도가 있는곳이 바로 무용총이다. 무용총은 각저총 옆에 우치하는데, 벽 모서리마다 건축 기둥과 두공을 그려놓어 마치 실내에 있는 것처럼 꾸몄다. 천정에는 주로 일월성신과 청룡, 백호, 서수, 닛선들을 그렸고 벽면에는 그 유명한 수렵도와 무용도가 있는데, 구구려 벽화의 백미라고 할수 있다.



실축도



현실 천정의 별자리

전실 좌측의 벽화

목조건축물의 두공과 단액을 표현하여 무덤을 실내의 공간처럼 꾸몄다. 벽화의 훼손 상태가 심하나 단액 위로 희미한 화염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묘주생활도 | 현실 동쪽벽

승려로 보이는 두 명의 손님을 접대하는 묘주의 실내 생활도이다. 장막의 형태나 실내의 분위기는 각저총의 묘주 생활도와 유사하다. 시종을 들고 있는 시종이 작게 그려져 신분 차이에 따라 인물의 크기가 다르게 표현된 것을 알 수 있다.



수렵도 | 현실 북쪽벽

말 탄 인물들이 산아를 질주하며 사냥하는 장면이다. 원근감을 느낄 수 없는 평면적인 화면에 일률적으로 처리된 짐승들의 동작이 얼핏 정지된 듯한 느낌을 주나 중앙의 울동적인 산의 형태로 인해 화면 전체의 운동감이 잘 살아나고 있다. 달아나는 짐승들과 이를 쫓는 기마 인물 사이의 긴박감도 실감나게 표현되었다.





무용도 | 현실의 남북

무용과 음악이 있는 연희의 장면이다. 한쪽 들에서는 남녀 혼성의 춤사위가 벌어지고, 왼쪽에 있는 가옥에서는 맨발의 시녀 세 명이 음식을 밖으로 나르고 있다. 흥겨운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묘주로 보이는 인물이 말 위에서 춤을 구경하고 있다. 무용총이라는 이름도 이 장면에서 유래하였으며, 가무를 즐기는 고구려인들의 멋스런 풍류를 엿볼 수 있다.

무용도 묘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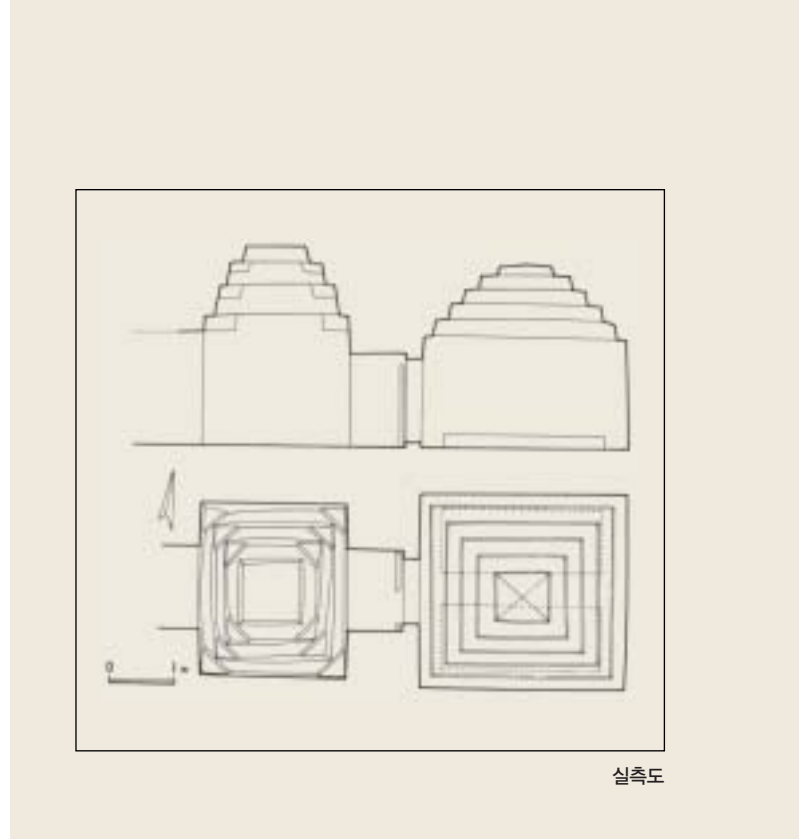


20

장천 1호분

5세기 중~후반, 중국 길림성 집안시

장천1호분은 모든 벽면을 빈틈없이 벽화로 채워놓은 점이 특징이다. 연화를 비롯한 각종 무늬와 생활상, 수렵도, 비천과 보살, 불상 예배도, 사신도, 문지기상 등 그야말로 고구려 벽화의 모든 장르를 동원해 고구려 문화와 풍속을 압축해 표현한 중요한 자료이다.



문지기 | 전실 동쪽벽의 입구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문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양 벽에 고구려 전통의상인 점무늬 옷을 입은 문지기가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무덤을 지키고 서있다.



불상 예배도 | 전실 동쪽벽의 천정

고구려 고분 벽화 중 유일한 예배도이다. 중앙의 불상은 선정인(禪定印)의 수인(手印)에 양옆에 사자가 있는 대좌 위에 앉아있다. 오른쪽에는 허리를 굽혀 예배를 하는 무덤의 주인공 부부가 보이며, 왼쪽에는 산개(傘蓋)를 들고 있는 남녀 시종이 이들을 지켜보고 있다. 그 주위에는 연화문과 비천들로 장식되어 주인공 부부가 동경하는 평화로운 불국토의 분위기가 잘 드러난다.



전실 동벽과 천정의 모사도

전실 동벽과 천정에 그려진 문지기와 불상 및 연화장식



전실 북벽과 천정의 모사도

전실 북벽과 천정에 그려진 풍속도와 보살상 및 연화화생





풍속도 | 전실 북쪽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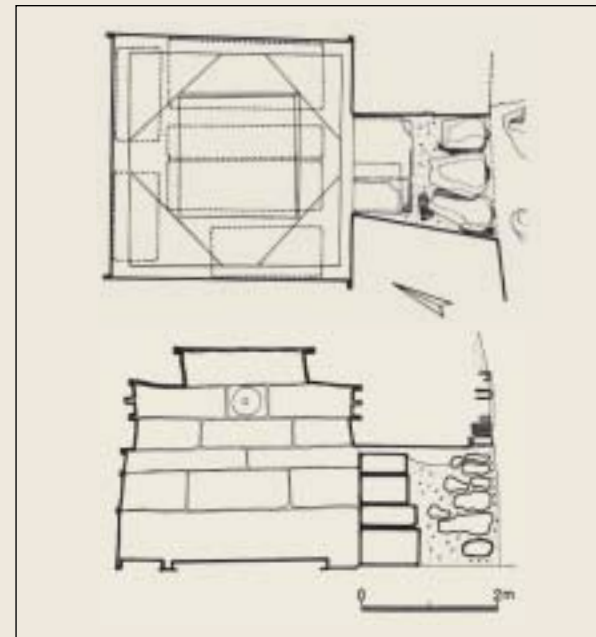
가무, 씨름, 출행, 곡예, 사냥장면 등의 다채로운 생활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 한 폭의 고구려 풍속화를 보는 듯하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벌어지는 가야금을 타며 춤추는 장면, 사슴을 쫓거나 호랑이에 활을 쏘는 장면, 공 던지기 곡예 장면들을 연봉오리가 흩어진 공간 속에 구획 없이 모두 뽁뽁하게 담아내었다.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고구려인들의 삶을 정감있게 표현한 귀중한 회화자료이다.

21

통구사신총

6세기 후반, 중국 길림성 집안시

각저총과 무용총 가까이에 있는 통구사신총은 묘실에 사신도를 그렸으며, 매우 수준높은 회화기법으로 신선과 괴수들을 묘사해 고구려인들의 다양한 신앙세계를 나타내었다. 벽화는 환상적인 주제이지만 생동감 넘치는 화필로 독특한 고구려 문화를 잘 표현하고 있다.



실축도



묘실 천정의 벽화모사도

주작도 | 묘실 남쪽 입구

입구 양 벽으로 서로 마주보며 서 있는 두 마리의 주작이 보인다. 힘차게 날개를 치켜 올린 자세와 빠르게 흘러가는 주변의 구름무늬로 인해 강한 역동감이 느껴진다.



백호도 | 묘실의 서쪽벽

서쪽을 상징하는 백호는 사신 중 유일하게 실재(實在)하는 동물로, 신수(神獸)의 성격을 보여주는 날개가 달려있다. 벽화의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분명히 보이지는 않으나 전반적인 구도와 표현 방식이 청룡도와 유사하다. 역시 들보에 인동당초문 장식이 보이며 그 위의 평행고임돌에는 달을 나타내는 월상이 보인다.



괴수도 | 묘실 서북 모서리

묘실 벽의 모서리에 양 팔로 들보를 떠받치고 있는 네 마리의 괴수 그림 중 하나이다. 짐승형의 머리와 팔 다리에서 뻗어 나오는 갈기의 표현이 힘센 역사(力士)로서의 이미지를 잘 보여준다.



청룡도 | 묘실의 동쪽벽

동쪽을 상징하는 청룡이 묘실 동벽의 중앙에 오색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벽면 위 들보에 화려한 인동당초문 장식이 보이며, 천정의 일층 평행고임돌에는 세 발 까마귀가 그려진 일상이 있다.



학을 탄 선인 | 묘실 남쪽 천정고임부

천정돌에 묘사된 열 명의 인물 중 학을 탄 두 명의 선인이다. 머리에 쓰고 있는 관과 복장, 신발 등이 선인의 특징을 보여주며, 날씬하고 자연스러운 몸매에서 인간화된 표현을 느낄 수 있다.



불의 신 | 묘실 서쪽 천정고임부

책상 앞에서 무언가를 쓰고 있는 인물과 나무 아래에서 불을 지피고 있는 인물이 나란히 묘사되었다. 모두 날개옷을 입어 세속의 인물이 아닌 신선세계의 선인으로 생각되며 그 중 하나는 불의 선인이 확실하다.



현무도 | 묘실 북쪽벽

정교한 필선으로 세부까지 치밀하게 표현한 현무 그림이다. 판에 박은 듯한 치밀한 표현으로 장식적인 느낌을 주지만, 뱀의 복잡한 꼬임과 주변에 빠르게 흘러가는 구름무늬로 인해 전체 화면이 생동감을 잃지 않고 역동적이다. 화면 위쪽 훼손되기 전의 현무도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마주보는 거북과 뱀의 모습이 고조된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모습의 현무도는 오회분 4호묘와 5호묘에서도 볼 수 있어 집안 지역 후기 사신도의 전형적인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당초넝쿨무늬 | 묘실 서북모서리

노랑, 빨강, 초록 삼색으로 아름답게 채색된 넝쿨무늬가 묘실 벽 상단의 사면에 걸쳐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양쪽으로 갈라진 인동무늬 중앙에는 흰색의 삼엽문(三葉紋)장식이 보이는데, 동일한 도안이 반복되는 단조로운 움직임을 피하기 위하여 위아래로 엇갈리게 표현하였다.

22

오회분 제4호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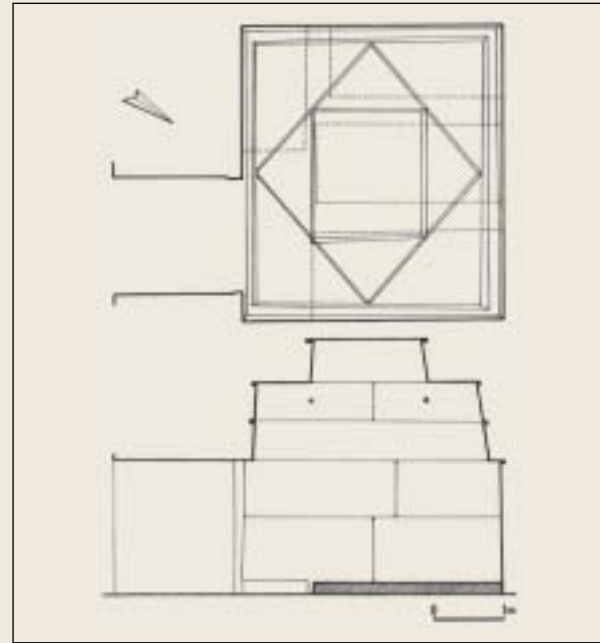
6세기말~7세기초, 중국 길림성 집안시 대왕촌

오회분은 우산(禹山)의 산자락에 나란히 자리한 5기의 투구 모양의 고분을 일컫는다. 그 중 4호묘와 5호묘는 말각조정의 단실묘로, 무덤의 구조와 벽화의 내용이 서로 흡사하며 보존 상태도 매우 좋다.

4호묘의 네 벽면의 주제는 사신이며 천정에는 신화적 인물과 신선, 다양한 장식문양 등으로 묘실 전체가 가득 채워져 한 폭의 도교 만다라를 보는 듯하다. 특히 묘실 벽 사신 묘사의 배경에 보이는 곡선의 귀갑형 당초문은 평양지역의 후기 사신도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요소이다. 아름답고 화려한 색채로 장식된 이 무덤 벽화는 신선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도교의 환상적인 세계를 잘 표현하고 있다.

주작도 | 묘실 남쪽벽

묘실 남쪽의 입구가 동쪽으로 치우치면서 한쪽 벽에만 한 마리의 주작이 그려졌다. 고구려 고분 벽화의 주작 그림 중 유일하게 비상하는 모습이다.



실측도



묘실 서벽의 신선 묘사도

묘실 남벽의 천인 묘사도



해와 달의 신 | 묘실 북쪽 천정

수목문을 중심으로 좌우에 해와 달을 상징하는, 용의 몸체에 사람의 얼굴을 한 복희(伏羲)와 여와(女媧)가 그려졌다. 오른쪽의 복희는 삼족오가 뚜렷하게 그려진 일상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있으며 여와도 두꺼비가 그려진 월상을 받치고 있다. 둘 다 깃을 댄 날개 옷을 걸치고 있어 신선적인 풍모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복희, 여와 그림은 평양지역에서는 보이지 않고 집안 지역의 후기 사신도 벽화에만 등장한다.



용과 학을 탄 신선

| 묘실 서쪽 천정

2층 삼각고임돌에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선인 9명 중에 서쪽의 삼각고임돌에 그려진 두 명의 선인이다. 중앙에는 두꺼비가 그려진 월상이 보이며 주변에 별자리와 붉은 운기(雲氣)가 표현되었다. 선명하고 환상적인 색채가 튀어나며 선인들의 유려하고 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운동감이 느껴진다.

주악 선인상 | 묘실 북쪽천정의 2층 고임돌

중앙의 허리장구(腰鼓)를 치는 선인, 오른 쪽의 거문고를 타는 선인 그리고 왼편의 붉은 색의 단악 그릇을 받쳐 들고 날아가는 선인이 그려졌다. 주위에는 붉은 색의 구름무늬와 별자리 장식이 보인다. 아름다운 색채와 율동적인 선의 조화가 환상적인 선인들의 세계를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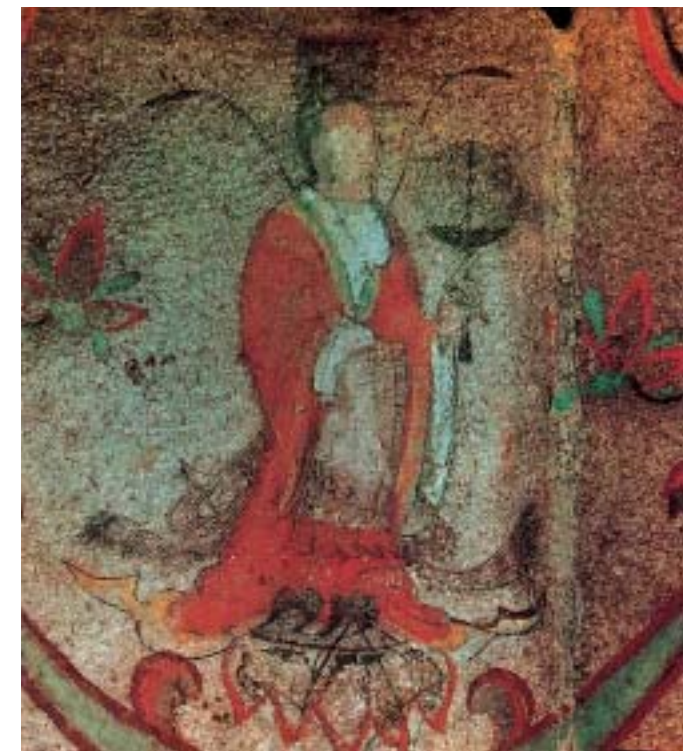
청룡도 | 묘실 동쪽벽

이 청룡도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사신도 중 가장 아름답게 그려졌다. 화려하고 곡선적인 당초줄기의 귀감형 문양을 배경으로 오색찬란하게 묘사된 청룡은 휘어진 목, 가늘고 긴 몸체, 굴곡진 꼬리의 신체적 특징을 보여준다. 특히 날개, 목 뒤에 부착된 화염형의 척목(尺木), 우모(羽毛) 등의 신체적 특징도 고구려 후기 청룡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배경에 묘사된 인동문, 불꽃문과 연화 장식이 무덤내부의 환상적인 분위기를 더해준다.



농사와 불의 신 | 묘실 동쪽 천정

삼각고임돌 왼쪽에 소의 머리를 가진 인물은 농사의 신인 신농(神農)을 묘사한 것으로 날개옷에 뿔족 신을 신고 있다. 오른쪽의 불의 신은 오른손으로 불씨를 나르는 비상하는 자세이다. 천정의 용과 휘어진 나무가지들의 표현에서 아름다운 색깔과 유려한 필선이 돋보이고, 신선 세계의 신비한 분위기를 더해준다.



신선상 | 묘실 북쪽 벽

인동당초문 안에 그려진 '선인화생(仙人化生)'의 인물이다. 어깨 위에 솟아난 더듬이 형태의 날개는 선인이 새롭게 탄생하였음을 알려준다. 도교의 불사(不死) 관념이 연화화생이라는 불교의 이미지에 투영된 이 도상은 고구려인의 뛰어난 창의적 예술 감각과 그들이 믿었던 신선사상과 불교가 결합된 사후세계관을 보여준다.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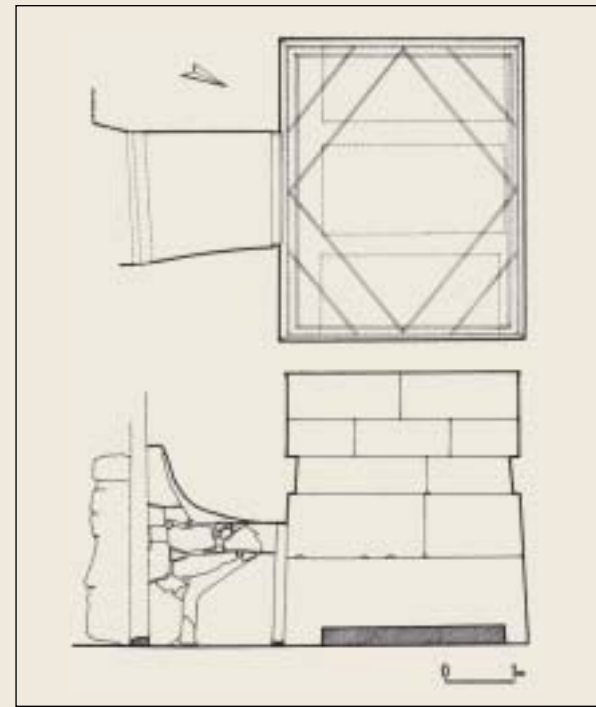
오회분 제5호묘

6세기 후반, 중국 길림성 집안시

5호묘의 무덤 구조는 천정의 말각조정 형태가 4호묘와 약간 다르나, 화려한 색채와 다양한 주제로 무덤 내부의 벽면을 빈틈없이 장식한 점은 4호묘와 같다.

벽화내용의 사신(四神), 도교의 신선들과 신화적인 인물, 그리고 서로 꼬여진 용의 표현 등은 4호묘와 동일하다. 특히 중국 신화의 인류 창조신인 복희와 여와의 등장은 평양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주제로 고구려 문화의 지역성과 다양성을 보여준다.

원색을 주로 사용한 화려한 채색이나 금, 보석류를 이용하여 호화롭게 장식한 점도 다른 벽화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



실측도



묘실 천정 벽화의 모사도



천정화 | 묘실의 북쪽 천정

들보, 평행삼각고임과 삼각고임 2층으로 이루어진 천정의 구조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들보에는 서로 엮인 용문양이 장식되었으며 바로 위의 평행삼각고임에는 위로 휘어진 등으로 위층의 고임돌을 받치는 용이 한 마리 묘사되었다. 그 좌우의 삼각고임들에는 복희와 여와 등의 신화적 인물이 보이며 2층의 삼각고임들에는 다양한 형태의 기악 선인이 등장한다.

현무도 | 묘실 북벽

4호묘와 같은 곡선형의 귀갑형 당초문을 배경으로 묘사된 이 현무도는 거북이와 뱀의 몸이 격렬하게 엮여 역동적인 힘을 느끼게 한다. 이처럼 복잡한 구도의 현무도는 집안 지역 후기 사신도 표현의 특징으로, 통구 사신총의 현무도와 유사하다. 같은 시기의 평양지역 벽화의 사신도 그림과는 다른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용과 기린을 탄 신선 | 묘실 서북 모서리

용을 타고 있는 인물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 점에서 흥미로우며, 이와 같은 형태의 선인이 통구 사신총에서도 5명이나 등장한다. 이 인물이 천상의 황제를 묘사하였다는 설도 있다. 기린을 타고 그 뒤를 따르는 선인은 고개를 뒤로 돌린 유연한 자세로, 활달한 필선에 선명한 원색으로 장식하여 운동감과 화려함을 더해준다.



해와 달의 신 | 묘실 동북 모서리

인류 창조 신화에 나오는 복희와 여와가 각기 해와 달을 상징하는 일신과 월신으로 변하였다. 역시 용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날개돋을 입고 있다. 이러한 신선 모습의 복희와 여와 그림은 중국과 평양 지역의 벽화에서는 보이지 않는 고구려 집안 지역만의 특징이다.



청룡도 | 묘실 동쪽벽

오회분 4호묘의 청룡도와 함께 고구려 사신도 벽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화려한 화염문이 장식된 곡선적인 귀갑형의 인동당초문을 배경으로 앞다리를 뻗고 비상하는 용이 오색찬란한 모습으로 신비스럽게 표현되었다. 섬세하면서도 활달한 필선과 화려한 색채가 잘 어우러져 신선세계의 환상적인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고구려의 뛰어난 회화 수준이 유감없이 발휘된 그림이다.

II. 동아시아의 강국, 고구려

임기환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실장)

고구려는 한국의 고대국가의 하나이다. 전성기인 5세기 경에 그 영역은 북으로는 송화강(松花江: 지금의 중국 길림성) 유역에 미쳤고, 남으로는 한국의 한강(漢江) 유역과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이르렀으며, 서로는 요하(遼河: 지금의 중국 요녕성) 서쪽에까지 확장되었고, 동으로는 연해주(지금의 중국 길림성 및 러시아) 지역에 이르렀다. 이러한 넓은 영토를 바탕으로 국력이 강화되어, 5세기 이후에는 동북아시아에서 독자적인 세력권을 구축하고, 중국 왕조와 더불어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움직여가는 중심 국가의 하나가 되었다.

1. 국호와 종족

‘고구려(高句麗)’라는 나라 이름에서, ‘구려(句麗)’는 성(城)·읍락(邑落) 등을 의미하는 고구려 말이고, ‘고(高)’는 크다는 뜻의 한자어로, 이를 합하여 ‘큰 고을’ 또는 ‘큰 성’이란 뜻으로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5세기 이후에는 고구려를 줄여 ‘고려(高麗)’라고 불렀다. 고구려를 세운 족속은 압록강 중류 유역에 거주했던 맥(貊)족이었다. 이들은 기원전 5~4세기 경부터 압록강 중류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며, 그 후 고구려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부여(夫餘) 방면에서 이주해 온 일부 예(濊)족이 합쳐져 고구려인(人)을 이루었다.

2. 국가의 성립

기원전 3세기 무렵부터 철기(鐵器) 문화가 보급되면서 고구려 국가가 성립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

런데 한(漢)나라가 고조선을 침략하면서 기원전 108년에 낙랑(樂浪)을 포함한 세 개의 군(郡)을 세우고, 기원전 107년에 고구려 지역에 현도군(玄菟郡)을 설치하였다. 이 지역 토착 세력인 고구려인은 현도군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였으며, 그 결과 현도군은 점차 요동지역으로 중심지를 옮겨갔다. 현도군을 몰아낸 뒤 여러 소국(小國)들은 고구려왕을 대표로 하는 연맹체 국가를 형성하였다.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에는 고구려의 건국설화(建國說話)가 실려 있는데, 여기에는 주몽(朱蒙)이 부여(夫餘)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압록강 유역의 토착세력과 함께 나라를 세운 것으로 기록하였다.

고구려는 태조왕(太祖王)대에 이르러 고구려족 전체를 통솔하는 보다 강력한 국가로 발전하였다. 지배체제가 정비되고, 왕권을 중심으로 국가 내부의 군사적 동원력이 확대되면서, 대외적인 정복활동과 영역의 팽창도 크게 이루어졌다. 먼저 농산물·해산물 등 물자가 풍부한 동옥저(東沃沮)·동예(東濊) 지역을 복속시키고, 중국 군현(郡縣)에 대한 조직적인 대규모 공격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초기 고구려의 성장은 중국 군현 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투쟁으로 계속 이어졌다.

3. 제도 정비와 대외 활동

4세기에 접어들어 고구려는 중앙집권적인 국가 체제를 구축하였는데, 특히 소수림왕(小獸林王)대에 율령(律令)이 반포되면서 제도적인 정비를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국력을 기른 고구려는 중국이 ‘5호(胡)16국(國)시대’라는 혼란

기로 접어들자 이를 이용하여 본격적인 대외 정복활동을 펼쳐 나갔다. 먼저 미천왕(美川王)은 313년에 낙랑군과 대방군(帶方郡)을 정복하여 한반도 내에 있던 중국 군현을 완전히 축출하였다. 비옥한 농경지대인 낙랑군, 대방군 지역을 확보함으로써 고구려의 국가 발전에 중요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어 고구려는 요동(遼東) 지역으로 진출하여 그 지역의 지배권을 놓고 선비족(鮮卑族)인 모용씨(慕容氏)가 세운 전연(前燕)과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였다. 342년에 고구려는 전연의 침입을 받아 수도 국내성(國內城)이 함락되는 국가적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또 남쪽으로 진출하면서는 백제(百濟)와 공방전을 치루었다. 371년에는 백제가 평양성(平壤城)까지 침공해 왔으며, 이 전투에서 국왕인 고국원왕(故國原王)이 전사하는 타격을 입었다.

고국원왕대에 서쪽과 남쪽 방향에서 이루어진 대외 팽창이 거듭 실패하자, 고구려는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지배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개혁정책을 펼쳤다. 고국원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소수림왕(小獸林王)은 율령(律令)을 반포하고, 태학(太學: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을 설립하였으며, 불교(佛敎)를 받아들여 널리 보급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로써 고구려는 보다 안정되고 강력한 집권적 지배체제를 수립할 수 있었다.

4. 독자적 세력권의 구축

체제 정비를 시도한 개혁이 성공을 거둔 뒤에 그 뒤를 이은 광개토왕과 장수왕이 비약적인 대외 정복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광개토왕 때 고구려는 서쪽으로는 선비족 모용씨가 세운 후연(後燕)을 제압하여 요동(遼東)을 장악하였고, 동북으로는 숙신(肅愼)과 동부여(東夫餘)를 정복하고 북으로 부여(夫餘)를 병합하여 남만주 일대를 차지하였다. 또 남쪽으로는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유역 일대까지 세력을 뻗쳤으며, 신라(新羅)에 대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어 장수왕 때에는 427년 평양(平壤)으로 수도를 옮기고 본격적인 남진정책을 추구하여 한반도 중부 일대를 완

전히 손에 넣었으며, 서쪽으로는 요하(遼河)를 건너 요서(遼西)를 사이에 두고 북위(北魏)와 힘을 겨루었다. 그리고 후연(後燕)과 동맹하여 만주 서북쪽에 자리잡은 유목 종족인 지두우(地豆于)을 분할 점령하여 지금의 흥안령 산맥에 이르기까지 세력을 뻗쳤다. 또 요하 상류의 거란(契丹)도 대부분 복속시켰다.

이처럼 광대한 영토를 개척하고 지배하면서 고구려의 국력은 강대해져 동북아시아에서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하였다. 더욱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중국이 남북조(南北朝)로 나뉘어 대립하고, 북방에서는 유목 국가인 후연(後燕)이 세력을 떨치며, 여기에 고구려가 하나의 세력권을 형성하는 다원적인 세력의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하여 5세기 중반 이후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는 상대적으로



광개토대왕비 414년

안정된 면모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고구려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위(北魏)는 물론, 남조(南朝)와 북방의 후연(後燕)과도 다각도의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대외관계에 힘입어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물론 중앙아시아 지역과도 교류함으로써 문화적으로도 다양한 제반 문물의 수용 속에서 독자적이면서도 국제성이 풍부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 시기 고구려의 융성과 국제 사회에서의 위치는 고구려인의 국가 의식에 반영되어 있다. 즉 지금까지 남아있는 고구려의 비문인 <광개토대왕비(廣開土大王碑)>와 <중원고구려비(中原高句麗碑)>의 내용을 보면, 고구려는 스스로 천하(天下)의 중심 국가임을 자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하대의 변동

6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고구려는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변화의 국면을 맞게 되었다. 먼저 대내적으로는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장기간에 걸쳐 귀족세력 사이에 치열한 정쟁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귀족세력의 어느 한 파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일정한 타협 아래 연합정권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귀족연립 정권은 말기까지 계속되는데, 최후의 집권자였던 연개소문(淵蓋蘇文) 역시 군사를 일으켜 반대파 귀족들을 숙청하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와 같은 대내적인 정국의 변화 속에서 고구려는 대외적으로도 여러 차례 위기를 맞게 되었다. 먼저 양원왕(陽原王) 7년(551)에는 백제와 신라가 동맹하여 고구려의 혼란한 내분을 기회로 기습 공격해오자 이들에게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말았다.

한편 대륙의 국제정세도 변화하였다. 580년에 건국된 수(隋)나라가 589년에는 남조 진(陳)나라를 정복하여 3백여년간 분열되었던 중국을 통일하였다. 중국에서 통일정권을 수립한 수나라는 중국 중심의 일원적인 국제질서로의 재편을 기도하였다. 먼저 북방을 차지하고 있던 돌궐을 격파하였고, 서역도 평정하였으며, 마침내 동쪽의 고구려에 대해 4차례에 걸친 침공을 계속하였다. 특히, 612년에는 수양제(煬帝)가 10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침공하였으나, 고

구려는 이를 격퇴하였다.

6. 멸망과 계승

수의 뒤를 이은 당(唐) 역시 북방과 서역을 장악한 이후에는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당나라도 수와 마찬가지로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세우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고구려와 백제로부터 양면 공격에 시달리던 신라는 당과 군사동맹을 맺게 되고, 이에 따라 당과 신라의 동맹세력이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을 시도하게 되었다. 보장왕(寶藏王) 4년(645) 당나라 태종(太宗)은 대규모 군대를 거느리고 고구려를 침공하였으나, 마침내 안시성(安市城) 전투에서의 패배로 실패하였다.

오래 계속된 전쟁으로 고구려의 국력도 서서히 피폐해졌다. 그리고 660년에 신라와 당의 연합군의 공격으로 백제가 멸망하게 되자, 고구려는 고립되었다. 특히 한반도 남쪽에서 군사 기지를 확보하게 된 당군이 평양성을 공격하게 되자 고구려는 남북 양쪽에서의 협공에 시달리게 되었다. 더욱이 정권 장악을 둘러싸고 내분이 일어나면서 결정적으로 국력이 약화되었다. 그리하여 668년에 마침내 나·당연합군(羅唐聯合軍)에 의해 평양성이 함락되어 고구려는 멸망하고 말았다. 약 7백년 동안 한반도와 만주지역에 걸쳐 강대한 국가와 찬란한 문화를 건설했던 고구려의 역사는 유민들과 함께 신라와 발해로 나뉘어 계승되었다.



광개토대왕비 탁본

III.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

전 호 태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1. 제1기: 영화로운 삶의 재현

고구려 고분벽화의 전개과정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제1기는 3세기말에서 5세기초에 걸치는 기간으로 고구려의 영토가 크게 확장되는 시기이다. 벽화는 주로 무덤 안에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이 시기의 벽화고분에 즐겨 표현되는 생활 풍속의 벽화내용은 죽은 자 생전(生前)의 저택구조를 재현하거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무덤간 구조와 서로 맞물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무덤은 흔히 무덤간의 모서리와 벽의 윗부분에 자주색 안료로 기둥과 들보 등 목조가옥의 뼈대를 그려 무덤 안을 주택과 같이 꾸민다.

생활풍속은 죽은 자 생전의 공적(公的) 생활 가운데 기념할만한 것과 사적(私的) 생활의 풍요로움을 무덤 안에 그림으로써 내세에도 이와 같은 삶이 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택해진 벽화주제이다. 때문에 생활풍속을 주제로 한 고분벽화에서는 무덤주인이나 무덤주인부부가 남녀시종들의

시중을 받으며 춤과 노래, 놀이를 즐기는 장면, 대규모 행렬에 둘러싸여 출타하는 장면, 산야(山野)를 질주하며 사냥하는 장면 등이 자주 나온다. 벽화 속의 인물들은 흔히 신분과 계급, 지위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른 사람의 몇 배, 혹은 몇 분의 일 크기로 그려지며, 모자와 머리모양, 입은 옷의 무늬와 빛깔, 소매나 가랑이의 너비와 길이 등이 다르게 묘사된다.

생활풍속을 주제로 한 평양·안악지역의 고분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묵서(墨書)로 쓰인 명문(銘文)이 남아 있는 안악3호분(安岳3號墳)과 덕흥리벽화고분(德興里壁畵古墳)을 들 수 있다. 안악3호분(357)은 회랑에 10.5m에 걸쳐 250명 이상의 인물이 그려진 대규모 행렬도로 특히 유명하다. 덕흥리벽화고분(408)은 북중국 동북의 넓은 영역에 걸쳐 설치되었던 유주(幽州)의 13군태수(郡太守)가 무덤주인인 자사(刺史) 진(鎭)에게 나아와 배례(拜禮)를 하는 장면과, 60여 개의 별자리 및 견우(牽牛), 직녀(織女)를 비롯해 신화, 전설상의 존재로 가득한 하늘세계의 그림으로 널리



장천1호분의 비천상



무용총 현실 서쪽 벽화



삼실총의 행렬도

알려진 무덤이다.

제1기에 속하는 국내(國內, 현재의 중국 길림성 집안)지역의 벽화고분으로는 각저총(角抵塚), 무용총(舞踊塚)이 잘 알려졌다. 집안의 우산(禹山) 남쪽기슭에 서남향으로 나란히 축조된 두 무덤의 내부는 목조가옥의 뼈대그림에 의해 벽면과 천장부가 나누어졌으며, 화면의 각 제재는 커다란 나무로 구분되었다. 각저총은 매부리코의 서(西)아시아계 인물과 고구려인 사이의 씨름그림으로 잘 알려졌지만, 무덤주인과 두 부인의 그림으로도 일반에게 익숙한 벽화고분이다. 무덤주인 부부와 시종을 비롯해 벽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 같이 불에 균살이 없이 얼굴 선이 깔끔하게 내려오는 고구려인 특유의 가름한 얼굴을 지녀 불과 턱이 살찐 평양권 벽화고분인 안악3호분 벽화 인물들의 얼굴과는 대조를 이룬다.

무용총은 산을 넘나드는 기마사냥 장면과 무용그림, 두 역사(力士)가 수박희(手搏戲)라고도 불리던 택견류의 격투기를 벌이는 장면, 하늘로 떠오르는 연꽃과 연봉오리, 선인(仙人)과 청룡(靑龍), 백호(白虎) 및 갖가지 상서동물들로 가득한 하늘세계 그림으로 잘 알려진 무덤이다. 무용 장면은 말을 타고 나가는 무덤주인과 그 뒤의 시동(侍童), 무덤주인을 배웅하는 무용수와 합창대로 이루어진 그림의 일부인데, 5세기 전반 국내지역 화가의 기량을 잘 드러내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제2기 : 복잡해진 하늘세계

제2기는 5세기 중엽에서 6세기초에 걸치는 시기로 동북아시아의 지배자 고구려가 내륙아시아의 패자 후연(後燕), 중국의 남조(南朝)와 북조(北朝) 등과 함께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좌우하는 4대 강국의 하나로 군림하던 시대이다. 이 시기 고구려의 외방이나 두방무덤에는 생활풍속과 사신(四神), 혹은 생활풍속과 장식무늬가 공존하는 그림, 장식무늬만을 주제로 한 다양한 유형의 그림들이 그려진다. 사신이 무덤칸 안에 그려질 때에는 방위나 방향에 맞추어 좌(左)청룡, 우(右)백호, 전(前)주작, 후(後)현무의 순서로 그려진다. 사신은 무덤자리가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사신 형상의 지세인 사세(四勢)에 해당되지 않거나 최선의 자리가 아닐 경우, 이를 대신하여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생활풍속과 장식무늬, 혹은 장식무늬가 벽화주제인 무덤은 427년의 평양 천도 이후, 고구려 북방의 정치·문화중심으로 기능하던 옛 수도 국내(國內) 일대에서 다수 발견된다. 벽화의 장식무늬로는 동심원문, '왕(王)자문, 연꽃문, 구름무늬, 얇힌 용무늬, 인동무늬 등이 선택되며, 이 가운데 연꽃문을 주제로 한 경우가 벽화고분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들 연꽃문은 5세기에 이르러 고구려에서 불교가 크게 유행한 것과 관련이 깊다. 무덤칸 안에 그려진 연꽃문은 죽은 자의 정토왕생(淨土往生)을 희구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제2기를 대표하는 국내지역의 벽화고분으로는 장천1호분(長川1號墳)과 삼실총(三室塚)을 들 수 있다. 장천1호분은 전형적인 두방무덤으로 무덤주인과 그의 손님을 위해 펼쳐지는 여러가지 놀이 장면, 여래와 보살, 비천과 기악천 등 불교적 존재들로 가득한 하늘세계와 이 하늘세계를 떠받치는 서아시아계 역사(力士)들의 모습, 두 사람의 동남동녀(童男童女)가 연꽃에서 화생(化生)하는 장면 등으로 관심을 모았던 벽화고분이다. 삼실총은 널방 세 칸이 'ㄷ'자 모양으로 이어진 특이한 형태의 벽화고분이다. 무덤 안의 두 번째, 세 번째 널방 각 벽에 가득 차게 그려진 역사들은 장천1호분 벽화의 역사들과 같은 서아시아계로, 초원의 길을 매개로 한 고구려와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와의 문화교류를 짐작하게 하는 존재 가운데 하나이다.

평양 및 안악지역의 생활풍속계열 무덤에서는 생활풍속과 사신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초기단계에는 사신이 무덤칸 천정부에 별자리와 함께 그려지지만,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벽면으로 내려와 결국 벽면 전체를 차지하면서 생활풍속 장면은 사라진다. 제2기에 속하는 평양·안악지역의 벽화고분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쌍영총(雙楹塚), 수산리벽화분(水山里壁畫墳), 덕화리1호분(德和里1號墳) 등이다.

두방무덤인 쌍영총 벽화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앞 시기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깔끔하고 세련된 필선으로 묘사

된 가름한 계란형 얼굴의 인물들이다. 남자들은 고구려 특유의 모자인 절풍(折風)을 머리에 쓰고, 선(選)을 덧댄 원설 저고리에 통 넓은 바지를 입었으며, 여자는 선을 덧댄 저고리에 주름치마를 입었다. 수산리벽화분의 벽화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의 인물들을 발견할 수 있다. 5세기 후반에 이르면 고구려 회화에서 고구려식 인물표현의 한 전형이 완성됨을 알 수 있다.

3. 제3기 : 보호받는 쉼터

제3기는 6세기 중엽에서 7세기 전반에 걸치는 기간이다. 5세기 후반에 성립시킨 범 고구려 문화의 성과가 고분벽화를 통해서 확인되지만, 이어진 정치·사회적 불안정으로 말미암아 동북아시아 패권국가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동북아시아 문화중심으로서의 역할도 도전 받는 시기이다. 고분벽화는 주로 무덤칸의 다듬어진 돌면에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안료 제작상의 기술적 진보를 읽게 하는 부분이다. 널방만 있는 외방무덤에 사신도(四神圖)가 즐겨 그려진다.

제3기 벽화고분들은 모두 구름기슭에 남향으로 축조되었으며, 뒤로는 산을 지고 앞으로는 들을 내다보는 이른바 '명당'의 기본조건을 갖춘 곳에 위치하였다. 이 시기 사신은 각각 널방의 한 벽면씩을 차지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현



강서대묘 북쪽 천정의 비천과 넝쿨무늬

상은 사신이 단순히 하늘의 28별자리[28星宿] 가운데 동서 남북 각 방위별 7별자리씩이 형상화된 방위신 정도가 아니라, 신선신앙과 불교신앙이 혼합된 형태의 내세를 지켜주는 우주적 수호신으로 여겨진 것과 관련이 깊다.

제3기 평양지역 벽화고분을 대표하는 강서대묘(江西大墓)와 강서중묘(江西中墓) 벽화는 고구려 회화가 6세기 전 반 중국 남북조로부터 받아들인 미술사조의 영향에서 벗어나 나름의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나갔는지를 잘 보여준다. 두 무덤 모두에서 사신은 아무런 배경없이 벽면에 그려졌으나, 세련된 필치와 선명한 채색으로 말미암아 상상적 동물임에도 마치 실재하는 존재인 듯이 느껴진다. 강서대묘의 현무, 강서중묘의 백호가 획득한 실재성(實在性)은 빈배경의 벽면에 깊은 공간감을 주어 벽면이 마치 아득한 하늘세계처럼 보이게 만든다.

제3기에 속하는 국내지역 고분벽화는 고구려 특유의 힘과 긴장감, 6세기경 국내 문화만의 화려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함께 담아내고 있어 고구려 후기문화의 지역적 성향과 특징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시기 국내 고분벽화의 특징은 오희분5호묘와 오희분4호묘 널방의 벽 및 천정고임 그림에 잘 담겨 있다. 널방 벽의 사신은 인동과 불꽃, 혹은 화생(化生) 중의 인동(忍冬) 및 인동연꽃 위의 화생천인(化生天人)으로 채워진 화려한 연속변형귀감문 위

에 세련되고 숙달된 필치로 묘사되었다. 사신의 몸체는 세부까지 세밀하게 묘사되었고, 오색(五色)으로 화려하고 선명하게 채색되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선명한 윤곽선과 엄격하게 구분된 채색띠, 규칙적이고 도식적인 세부표현 등은 오히려 신수(神獸)로서 사신이 지녀야 할 신비성과 사실성을 약화시키는 면도 있다.

두 고분벽화의 천정고임에는 해와 달, 별자리 외에 해신과 달신을 비롯해 불의 신, 농사의 신, 대장장이 신, 수레바퀴의 신, 솥들의 신 등 여러 종류의 문명신(文明神)과 악기를 다루는 천인(天人)들이 등장한다. 고구려 특유의 힘과 긴장감을 담은 자세로 해와 달을 받쳐들고 있는 해신, 달신 등은 평양지역의 고분벽화에는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시기 중국 남북조의 회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존재들이다.

IV. 고구려 고분의 어제와 오늘

강 현 숙 (동국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고구려 고분은 고구려의 높은 문화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적석총과 벽화분은 넓은 영역을 가진 강국으로서의 고구려뿐 아니라 문화대국으로서의 고구려의 위상을 보여주고, 고구려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고구려 영역이 중국과 북한에 걸쳐있는 까닭에 우리의 고구려 고분에 대한 조사, 연구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고구려 유적이 분포하는 북한에서는 고구려를 역사상 가장 강성한 국가로 이해하고 있으며, 정권수립 이전부터 역사 유적과 유물을 잘 발굴하고 보전,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북한 각지에서의 고고학 조사 결과, 한반도에서 구석기와 청동기 시대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선사시대뿐 아니라 고구려 고분에 대한 조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49년 황해도 안악지방에서 발견된 안악3호분이나 1957년에서 1959년에 걸친 압록강 지류인 독로강과 자성강 일대에 댐을 건설시 조사된 다수의 고구려 고분은 고분의 축조와 벽화의 전개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자료가 되고 있다. 발굴조사와 함께 1990년대에 들어서는 역사의 주체적 발전을 강조하면서 평양을 중심으로 그간 조사된 주요 고분에 대한 복원,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 고구려 고분

고구려 고분은 지역과 시간에 따라 여러 모습을 보이나, 대체로 적석총과 석실봉토분으로 나뉘어지며 석실봉토분 중에 벽화분이 발견된다. 적석총(積石塚)은 지상에 주검을 안치한 후 돌을 덮어 매장을 마감한 것으로, 지상의 돌무지

로 확인된다. 외형은 적석총의 축조기술의 발달에 따라 무기단, 기단, 계단으로 변화하였다. 적석총은 돌무지 하나에 한 사람이 안치된 1인 단장 무덤과 방을 만들어 합장을 한 무덤으로 나뉘며, 단장 무덤에서 합장의 적석총으로 변화하였음이 밝혀졌다.

석실봉토분(石室封土墳)은 지면이나 반지하에 돌로 방(石室)을 만들고 그 위를 덮은 무덤으로, 대개 부부(夫婦)를 합장하였다. 석실봉토분은 고구려 고유의 적석총과는 분구 축조재료에서 차이를 보일 뿐 매장부의 구조는 석실적석총과 같으며, 적석총과 함께 무리를 이루기도 한다.

벽화고분은 무덤 내부 벽에 그림을 그려 장식한 것으로, 중국 집안에서는 적석총에서도 확인되나 북한의 벽화분은 모두 석실봉토분이다. 벽화분의 구조는 매우 복잡하여 분구에는 돌로 기단을 돌리기도 하고, 무덤 내부에는 주검이 안치되는 널방 외에도 제의가 행해지는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벽화가 없는 무덤에 비해 무덤 축조에 많은 비용이 소용되어, 상위 신분에서 벽화분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벽화는 무덤 내부 전 공간에 그려졌는데, 회를 바른 후 그린 것과 벽면을 잘 다듬은 후 직접 그린 두 가지가 있다. 회를 발라 그린 벽화에는 묘주 초상화와 생활의 여러 장면들, 천상의 세계가 묘사된 경우가 많고, 벽면에 직접 그린 그림 중에는 사신도가 대표적이다.

2. 고분을 통해 본 고구려

고분에는 고대사회의 여러 모습이 투영되어 있듯이, 적석총이나 벽화분을 포함한 석실봉토분의 규모와 벽화내용

을 통하여 고구려가 정치, 군사적 강국으로서 뿐 아니라 문화선진국이었음을 알 수 있다.

1) 고대 문화의 전승

압록강 중하류 유역에 집중된 고구려 초기의 적석총은 선사시대 돌무덤 전통을 계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적석총의 축조방식이나 매장방법은 중국 요동반도의 적석묘와 고인돌, 길림 지역의 선사시대 석관묘들과 공통된다. 원래 요녕성과 길림성을 포함한 중국 동북지역은 선사시대 이래 돌무덤을 사용하였던 지역으로, 중국 중원(中原)의 한문화(漢文化)의 파급과 함께 목관묘(木棺墓)를 사용하여, 선사시대 돌무덤을 계승한 고구려의 무덤과 차이를 보인다.

적석총은 동아시아에서 유행하였던 합장풍습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널방과 널길이 달려있고, 고임식으로 천정을 올려 내부 공간 확대를 의도한 계획적인 구조의 석실은 고구려의 영역확대와 함께 각지에서 축조되었고, 발해의 상위 신분의 무덤형식으로도 채용되었다. 동시에 새로이 받아들인 석실봉토분과 결합하기도 한다.

적석총에서 석실봉토분으로의 변화가 고구려 주민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음은 북한에서 복원 정비한 동명왕릉에서 잘 드러난다. 동명왕의 무덤으로 비정된 무덤은 기단을 가진 석실봉토분으로, 적석총의 축조방식과 새로운 장법의 석실봉토분을 결합시켜 당시의 모든 묘제를 아우른 형식이다. 이와 같은 석실기단봉토분을 평양에 축조하였다는 사실은 고구려가 적석총을 계승하는 한편, 당시 동아시아에서 유행하였던 장법을 결합한 고구려의 포용성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2) 넓은 영토를 가진 강국

만주일대와 한반도 북부지방에 분포하는 고구려 산성과 산성 주변에 분포하는 고분들은 해당지역에 거주하였던 고구려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보여주는 한편, 고구려가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이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북한에서 조사된 안악3호분이나 덕흥리고분은 고구려가 황해도 일원과 중국 동북부 부근이 고구려 세력권에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안악3호분은 큰 규모와 다양한 벽화내용, 회랑을 가진 특이한 구조를 가졌으며, 무덤 내에 쓰여진 묵서명으로 4세기 중엽(357)경에 축조되었음이 밝혀졌다. 안악3호분은 발굴 초기에 묵서명에 나오는 인물인 동수(冬壽)를 따라 동수묘로 불리기도 하였으나, 1960년대초 주인공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결과 고구려 왕릉으로 결론을 지었다. 최근 황해도 신원의 장수산성의 발굴 결과와 더불어 안악3호분은 고국원왕의 무덤으로 비정되기도 한다. 설사 안악3호분이 왕릉이 아니더라도, 황해도 일원에 거대한 규모의 무덤을 쓸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황해도 일원이 안정적인 고구려 세력권에 들어 있었음을 실증하는 것이다.

덕흥리고분은 전후 두 개의 방이 연결된 무덤으로, 앞방에서 주검이 안치되는 뒷방으로 가는 통로 벽 위에 광개토대왕의 연호인 영락(永樂) 18년(408)의 연대가 있는 묘지명이 있다. 그 내용에 의하면, 무덤의 주인공은 유주자사(幽州刺史)를 지낸 진(鎭)인데, 그는 중국에서 망명하여 고구려의 관직을 지낸 사람이다.

3) 선진 문화국가

고구려가 삼국의 정치뿐 아니라 문화를 선도하였음은 한반도 각지에 분포하는 유적에서 확인된다. 가령 한강 유역에 분포하는 백제의 적석총이나 신라 영역에서 확인되는 벽화분과 석실 축조방법 등이 그러하며, 신라의 적석목곽분에 부장된 장신구와 마구류를 비롯한 각종의 부장품 등도 삼국 문화를 선도한 고구려의 위상을 잘 보여준다.

고구려가 일본의 고분 문화에 끼친 영향은 벽화분에 잘 나타난다. 특히 일본의 다카마즈나 키토라벽화분들이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다카마즈벽화분에 묘사된 여인의 긴 주름치마는 수산리벽화분이나 쌍영총벽화분의 주름치마와 비슷하게 묘사되었고, 키토라벽화분의 사신은 고구려의 사신과 비슷하게 묘사되었다.

결국 고구려의 벽화분이 한반도는 물론 일본 등 주변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문화국가로서의 고구려의 위상을 반증하는 것이다.



장군총(적석총)

3. 최근 고구려 벽화분의 연구 동향과 앞으로의 과제

고구려 고분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근 한 세기의 역사를 가졌다. 1900년대 강서대묘가 조사된 이래 100여 기의 벽화분이 조사, 확인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조사된 태성리3호분에 보이는 안악3호분과 같은 구조나 금옥리고분의 선각으로 그린 그림은 고구려 벽화분 구조와 벽화기법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렇듯 새로운 자료의 증가는 고구려 벽화분의 기원과 전개과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나아가 벽화내용을 통한 고구려 사회의 복원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는 벽화분의 기원에 대한 것으로,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하여도 고구려 벽화분은 중국이나 중국을 통한 서역의 영향으로 축조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독로강과 자성강 일대 조사에서 벽화분이 고구려 고유묘제로부터 자체적으로 발전하였을 가능성이 제시되었고, 최근 조사의 증가로 적석총에서 석실봉토분으로의 단계적 발전이 관찰되고, 돌을 무덤 재료로 사용한 점과 장식도안이나 사신도 벽화분은 고구려 벽화분의

축조가 단순히 중국 벽화분의 모방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중국에서의 조사 결과에 힘입은 바 크다. 중국 길림성 집안의 절천정총이나 우산하41호분은 벽화가 장식된 적석총이다. 이는 적석총을 사용하였던 고구려 사람들도 벽화를 받아들인 결과로, 고구려 고유 묘제인 적석총과 새로운 벽화분이 결합, 융합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져 기존의 견해를 수정, 보완하게 되었다. 이렇듯 고구려 고분연구는 북한 혹은 중국 단독의 연구보다는 양국의 노력이 함께 할 때 보다 발전이 있을 것이다.

고구려 벽화분은 고구려 사회에 대한 무한한 정보를 지니고 있는 무언의 기록일 뿐 아니라 다양한 내용을 갖고, 잘 남아있는 동아시아의 문화유산이다. 고구려 벽화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일 것이다. 이를 조사, 연구하고, 보존하는 것은 당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의 고구려 고분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연구는 더욱 절실하다.

고구려 벽화고분 일람표

명 칭	위 치	추 정 연 대	명 칭	위 치	추 정 연 대
평양일대 고분			개마총 (鎧馬塚)	평양시 삼석구역 노산리	5~6세기
안악3호분 (安岳3號墳)	황해남도 안악군 오곡리	4세기 중엽 (357년)	수렵총 (狩獵塚)	평안남도 온천군	6세기초
봉성리고분	황해남도 안악군 봉성리	4세기 중엽	호남리사신총 (湖南里四神塚)	평양시 역포구역 용산리	6세기 초반
요동성총 (遼東省塚)	평안남도 순천군 용봉리	4세기 중 ~ 후반	성총 (星塚)	평안남도 온천군 신영리	6세기 전반
태성리1호분 (台城里1號墳)	평안남도 강서군	4세기 중 ~ 후반	고산리1호분 (高山里1號墳)	평양시 대성구역 고산리	6세기 전반
평양역전고분 (平壤驛前古墳)	평양시 외성지역	4세기 중 ~ 후반	진파리4호분 (眞坡里4號墳)	평양시 삼석구역 성문리	6세기 중엽
동암리고분 (東岩里古墳)	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리	4세기 후반	진파리1호분 (眞坡里1號墳)	평양시 역포구역 용산리	6세기 후반
감신총 (龔神塚)	평안남도 온천군 신영리	4세기말 ~ 5세기초	내리1호분 (內里1號墳)	평양시 삼석구역 노산리	6세기 후반
동명왕릉 (東明王陵)	평양시 역포구역 용산리	4세기말 ~ 5세기초	강서대묘 (江西大墓)	평안남도 대안시	6세기 후반 ~ 7세기 전반
안악1호분 (安岳1號墳)	황해남도 안악군 대추리	4세기말 ~ 5세기초	강서중묘 (江西中墓)	평안남도 대안시	6세기 후반 ~ 7세기 전반
덕흥리고분 (德興里古墳)	남포시 강서구역	5세기초 (408년)	조아리고분	평안남도 자성군 조아리	
약수리고분 (藥水里古墳)	평안남도 강서군 약수리	5세기초	서해리고분	평안남도 자성군 서해리	
태성리고분	평안남도 강서군 태성리	5세기초	법동리고분	평안남도 자성군 법동리	
가장리고분	평안남도 증산군 가장리	5세기 전반	송암리고분	평안남도 자성군 송암리	
연화총 (蓮花塚)	평안남도 강서군	5세기 후반	보산리고분	평안남도 대동군 보산리	
대안리1호분(大安里1號墳)	평안남도 용강군 대안리	5세기 후반	집안지역 고분		
쌍영총 (雙楹塚)	평안남도 용강군	5세기 후반	통구12호분 (通溝12號墳)	길림성 집안시	4세기말 ~ 5세기초
수산리고분 (水山里古墳)	평안남도 남포시 강서구역	5세기 후반	모두루총 (牟頭婁塚)	길림성 집안시 하양어두	5세기초
우산리1호분	평안남도 남포시 우산리	5세기 후반	각저총 (角抵塚)	길림성 집안시 우산	5세기 전반
우산리2호분	평안남도 남포시 우산리	5세기 후반	무용총 (舞辭塚)	길림성 집안시 우산	5세기 전반
우산리3호분	평안남도 남포시 우산리	5세기 후반	미인총 (美人塚)	길림성 집안시 산성자	5세기 중엽
운룡리고분	평안남도 평원군 운룡리	5세기 후반	장천1호분 (長川1號墳)	길림성 집안시	5세기 중 ~ 후반
고산리9호분 (高山里9號墳)	평양시 대성구역 고산리	5세기	환문총 (環文塚)	길림성 집안시 하양어두	5세기 후반
용강대묘 (龍崗大墓)	평안남도 남포시	5세기	산연화총 (散蓮花塚)	길림성 집안시 우산	5세기 후반
팔청리고분 (八淸里古墳)	평안남도 대동군	5세기	삼실총 (三室塚)	길림성 집안시 우산	5세기
복사리고분 (伏獅里古墳)	황해남도 안악군	5세기	마선구1호분 (麻線?1號墳)	길림성 집안시	5세기
안악2호분 (安岳2號墳)	황해남도 안악군 대추리	5세기말 ~ 6세기초	구갑총 (龜甲塚)	길림성 집안시 산성자	5세기말~6세기초
덕화리1호분 (德和里1號墳)	평안남도 대동군	5세기말 ~ 6세기초	통구사신총 (通溝四神塚)	길림성 집안시 우산	6세기 후반
덕화리2호분 (德和里2號墳)	평안남도 대동군	5세기말 ~ 6세기초	오회분 제5호묘 (五臺墳 第5號墓)	길림성 집안시 대왕촌	6세기 후반
천왕지신총 (天王地神塚)	평안남도 은산군 북창리	5~6세기	오회분 제4호묘 (五臺墳 第4號墓)	길림성 집안시 대왕촌	6세기말~7세기초